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융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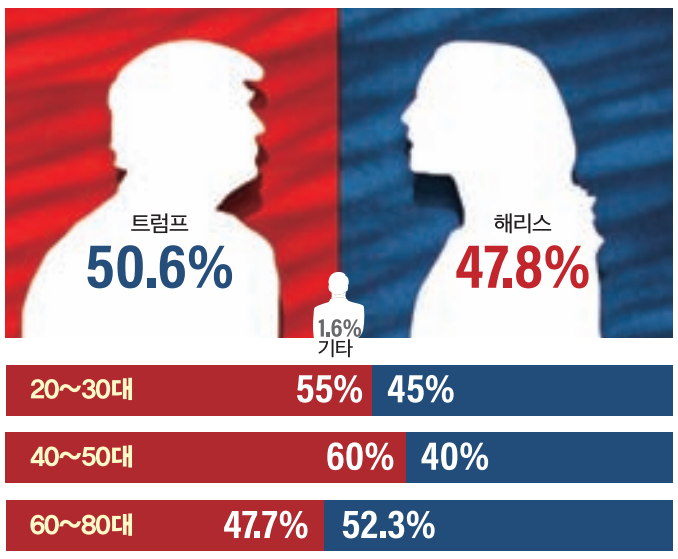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2호
Thursday, October 3, 2024 A

20~50대 한인들, 과반수 이상 트럼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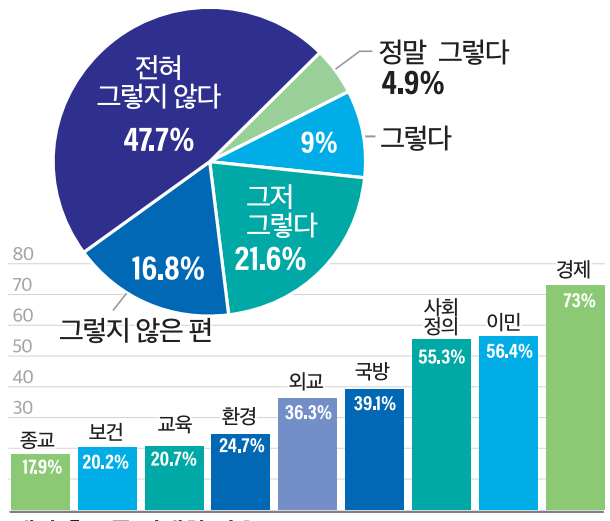
대선 후보 본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50. 6% vs 해리스 47. 8%
젊은층 트럼프·시니어는 해리스
후보 선택기준 경제·이민·정의
5명중 3명 "국가 방향 잘못됐다"

오늘 투표 한다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해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

한인들은 근소한 차로 '트럼프'를 선호했다. 이는 본지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한인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 조사의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두 후보를 두고 한인들의 선호도 차이는 2% 포인트에 불과했다.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서 갈린 셈이다.

'오늘 투표한다면 어떤 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6%)이 트럼프-밴스를 선택했다. 해리스-월즈를 택한 응답자는 47.8%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트럼프 후보가 51.8%, 해리스 후보가 47.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도를 연령별로 나눠봤다. 20~30대 응답자 중 55%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해리스를 선택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45%로 조사됐다. 젊은층일수록 비교적 해리스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국내 전체 유권자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40~50대의 경우도 응답자 중 60%가 트럼프를 택했다. 반면, 60~80대 장년층의 선택은 트럼프(47.7%)보다 해리스(52.3%)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후보를 선택하게 된 주요 이슈 3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슈는 경제(73%)였다. 이민(56.4%), 사회정의(55.3%) 이슈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외 국방(39%), 외교(36%), 환경(24.7%)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인들은 '현재 미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2명 중 한 명 꼴인 47.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한인도 16.8%였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답변을 종합하면 한인 5명 중 3명(64.5%)은 미국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한인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는 본지 웹사이트(www.koreadaily.com)를 통해 지난달 9월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 전국에서 총 1684명이 참가했다. 가주에서는 1126명이 참가했다. 응답자 중 83%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바람을 적는 한인들도 있었다.

한인들은 '견제하지만 싸우지 말고 미국과 우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부정선거 없는 공정한 경쟁' '정직하고 리더십있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대통령을 기다린다'등의 기타 의견을 적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이스라엘 며칠 내 이란 겨냥 대규모 보복 계획"

"핵시설 공격 등 모든 방안 검토"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이란 내 석유생산 시설과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겨냥해 상당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일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실제 보복에 나선다면 이란의 재보복으로 이어져 중동 확전 우려는 현실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유력한 목표물로 이란 내에 있는 석유 시설을 지목하고 있지만, 일부는 유력 인사 암살이나 방공 시스템 파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전투기 공습은 물론이고 두 달 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것과 유사한 비밀 작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전날 하니예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며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 공격에 대응할 경우 치명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출격하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모든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란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큰 의문이 있지만, 그들이 전력을 다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전날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시점에 예루살렘 근처 산속 지하 벙커에서 대응 회의를 가졌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내각은 이 회의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지만, 어떤 대응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 고위 당국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보복을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이 보복이 갖는 전략적 의미 때문에 미국과 계획을 조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천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또 다른 공격으로 대응할 경우 미군 중부사령부와의 방어 협력, 이스라엘 공군이 쓸 탄약 확보, 미국의 작전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양측의 회담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계기사 10면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부통령 후보 토론은 "밴스의 승리"… 젠틀함도 돋보였다

1일 뉴욕 CBS방송센터에서 열린 부통령 후보들의 TV토론에선 3번의 악수 장면이 노출됐다. 다만 토론 시작과 토론 이후 악수를 나눈 장소가 달랐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JD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무대 입장과 토론 시작 때 무대 중앙에서 악수를 하며 덕담을 나눴다.

토론 직후엔 40세 밴스가 60세 월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해리스의 '판정승'으로 평가된 지난달 대선후보 TV토론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단으로 다가가 예정에 없던 악수를 청했던 장면과 위치가 바뀌었다.

이날 토론 중 CBS가 토론을 지켜봤다고 응답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평가에서 밴스의 승리라고 답한 비율은 42%, 월즈의 승리는 41%였다. 17%는 무승부라고 했다. 반면 공식적으로 '해리스 지지'를 표명한 뉴욕타임스(NYT)는 "최소한 밴스가 더 유창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R-OH)이 1일 뉴욕에서 열린 CBS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실제 월즈는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을 지지하겠느냐'는 예상 외의 첫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어…'라며 중간중간 말을 멈추더니 "이스라엘과 그 대리인(proxies)"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리인'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정파 하마스·헤즈볼라 등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월즈는 총기 규제와 관련한 답변 과정에선 자신의 17세 아들이 직접 총격을 목격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런 뒤 원래 소총 금지에 반대했지만,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피해자 부모들과 대화한 뒤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 총격범(shooter)과 친구가 됐다"는 말실수를 했다. 피해자 부모를 총격범으로 잘못 말했다.

밴스는 월즈의 실언성 발언에 말꼬리를 잡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총격을 목격했다는 것을 몰랐다. 정말 유감이고, 아들이 잘 지내길 바란다"며 월즈와 그의 아들을 위로했다. 그런 뒤 교내 총기 폭력에 대해 "학교의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교내 총기 사건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어떤 때는 '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니오'가 된다"며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트럼프까지 두 차례 총격 위험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해진 총기 사고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약점이다. 월즈 아들을 위로하며 약점에 대한 답변을 최소화한 밴스는 곧장 "해리스의 열린국경 정책 때문에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대량의 불법 총기를 미국에 유통하고 있다"며 화제를 국경문제로 돌려버렸다.

토론을 주관한 CBS는 홈페이지에서 미국보다 총기 규제가 강한 멕시코에서 총기가 유입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실언성 또는 거짓 발언 등에 대해선 나란히 인정하는 전략을 썼다. 어차피 해명이 어려운 사안은 미리 접어놓고 상대에 대한 공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즈의 경우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홍콩에 있었다는 과거 발언을 반박에 대해 곧장 "잘못 말했다(misspoke)"고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난 완벽하지 않고, 때때로 멍청이(knucklehead)였다"는 '이실직고' 전략으로 밴스의 추가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다.

밴스도 자신이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지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내가 틀렸다(I was wrong)"고 했다. 그는 2016년 대선에 출마했던 트럼프를 향해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다가, 2020년부터 충성파로 전향했다. 밴스는 당시 트럼프를 비판한 발언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월즈가 중국 발언을 실수한 이유와 같다"고 했다.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면서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88%는 이날 토론이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진보와 보수 가운데서도 양극단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의 토론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시청자들은 월즈와 밴스에 대해 각각 74%와 65%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토론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잘했어 JD"라며 "JD가 압승했다. 월즈는 카멀라처럼 매우 낮은 지능의 재앙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캠프 역시 "밴스의 압도적 승리이자 역대 부통령 후보 중 최고의 토론이었다"며 "트럼프가 왜 그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는지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해리스는 별도의 평가 없이 "팀 월즈와 나는 국민의 힘으로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당선되면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신 해리스 캠프가 "모든 이슈에서 월즈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 친구 팀 월즈가 좋은 부통령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보를 위해 싸우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1 (왼쪽부터)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와 그의 아내 우샤 밴스가 CBS 뉴스 주최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끝난 뒤 미네소타 주지사이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츠와 그의 아내 그웬 월츠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왼쪽)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츠가 CBS 뉴스 주최 부통령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워싱턴 날씨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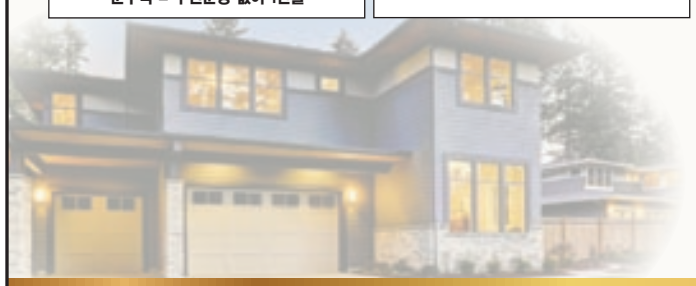
10월 3일(목) 75~62

4일(금)	77~63	7일(월)	73~51
5일(토)	78~57	8일(화)	68~48
6일(일)	76~63	9일(수)	66~4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첨 $660,000
SOLD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 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맥밀,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38만
1900 SF, 연매상 1백만불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NEW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아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and Wine
주1만8천불수입, 랜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랜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 임대계약, 50만불
단독건물
에난데일 최고 상권, K-Market 건너편
임대, 드라이브 뜨루있음, 2500 SF.
식당, 커피샵,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이 워싱턴 지역경제 좌우한다

SPECIAL STORY

양당 후보 대선 공약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양당 대선 후보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공약이 워싱턴 지역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장 직접적으로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엇갈리는 지점이 많다.

버지니아의 노폭과 햄튼 로드 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 경제는 전적으로 해군 관련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지역경제가 커다른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양당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워싱턴 지역에 널리 분포한 대규모 부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부 대서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군부대 벨트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전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폭 등의 해군기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폭과 햄튼로드 해군 기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TO와 거리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중부 대서양 지역 해군기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친하다"면서 "취임 후 24시간 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해 전쟁과 위기를 종식시키겠다"고 단언했다.

두 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완강한데, 결국 유럽에 편중된 미군 역량을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 전력 강화로 선회해, 중부 대서양 해군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제프 라이어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부대 재정비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워싱턴 지역 수혜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너지 정책은 마치 양당 후보가 마치 물과 불처럼 다른 면면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6개 경합주 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위스콘신과 미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앞서고 있으며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2004년 이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적이 없다.

김옥채 기자

재미한인장학기금 수여식 주미대사관(대사 조현동)은 1일, 2024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워싱턴 인근 지역 한인 대학(원)생들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김학조 공공외교공사(사진 가운데) 주재로 주미대사 명의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미국 전역에서 67명의 동포 및 유학생들이 선발됐다.

성전환 학생 호칭 거부한 교사 배상

해고 피해 VA 공립교 교사 57만5천달러 배상 합의

성전환 학생의 바뀐 이름을 부르길 거부했던 공립학교 교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버지니아 웨스트 포인트 시티 교육청은 버지니아 대법원이 하급법원에 재심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 교사에게 57만5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터 블래밍 교사는 공립고교 불어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2021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바꿔 불리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호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킹 윌리엄 카운티 순회법원은 블래밍 교사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대법원 재심을 통해 재판 권리를 얻었다.

2019년 랄프 노덤 전 주지사 재임 시절, 버지니아는 성전환학생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으로 호명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되거나 여러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2022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노덤 전 주지사 시절 지침을 뒤집고 기존 이름을 계속 호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미 기자

다음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G3 컨퍼런스

열린문 장로교회 오는 25-26일 개최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 및 부모, 사역자들을 위한 G3(God, Gospel, Generation) 컨퍼런스가 오는 25일(금), 26일(토) 버지니아 헌던 소재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요셉 목사, ODPC)에서 열린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Let Your Children Know and Trust God(시편 78:6)'를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는 박혁 목사(다음세대목회팀장)는 "이시대 자녀들이 속한 환경에서 받는 고민과 문제들을 부모와 교사, 사역자들과 나누는 유익한 강의가 준비될 것"이라며 "시편 78편 말씀에 기초한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노승환 목사(뉴저지 찬양교회 담임)가 주 강사로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적 성경적 자녀 양육'을 주제로 강연한다. 더불어 이진아 전도사가 '다음세대 정체성 위기:성경적 성교육으로 회복', 조희창 목사(미주 낮은울타리 본부-다음세대 사역 전문가)가 '미디어 중독', 권미경 박사가 '아동 청소년기의 불안과 우울', 강유진(공립학교 교사) 치료사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사회성 언어의 발달과 대화법'을 강연 할 예정이다. 등록기간은 오는 6일까지, 등록비는 20달러이다.

▷등록링크: https://odpc.church/payment/

▷문의: brian.jung@opendoorpc.org(정진호 목사)

김윤미 기자

OMNI 옴니화재 FINANCIAL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옳은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형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 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AKU USA Alliance For Korea United 미주통일연대

제 1회 코리안 드림 공감-토크 콘테스트

미래 통일 한국의 주인공이 차세대들의 통일관과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코리안드림공감-토크콘테스트"에 차세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 제
'남북통일과 북한인권 관련해 관심 있는 이슈'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과 미래 비전 등을 담은 다양한 형식 (작문 및 쇼츠 영상등) 으로 제작.
주제 및 형식은 자유자재로 선택 가능.

예
a.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MZ 세대 선수가 한국선수와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 나의 생각
b. 탈북에 성공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c.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호소할까?
d.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e.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상상한다면... 등등

Topic
Choose an 'issue of interest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roduce a variety of formats (writing and short videos, etc.) containing your thoughts and future visions. The topic and format can be freely selected.

Examples
a. My thoughts on the news that a North Korean MZ generation athlete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could be punished for taking a selfie with a South Korean athlete
b. A message to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just successfully escaped and settled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How can I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sons why unification of two Koreas must happen?
d. What do I want to say to separated families who miss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e. If you imagine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etc.

신청방법
1. Letter 사이즈 2장 분량의 글짓기 혹은 5분 이하 퍼포먼스 영상 제출. (한국어, 영어 중 선택 가능)
2. 참가자 중 10명을 선발해 결선 무대에서 직접 발표, 대회 당일 현장심사후 최종 수상자 결정.
3. 상금과 상장: 대상 1명 700불/ 최우수상 1명 500불 / 우수상 3명 200불/ 장려상 5명100불
4. 참가자격: 7th ~ 12th Grade
5. 작품 제출기간: 2024년10월 5일(토) ~ 11월 15일(금) 자정까지
6. 작품 제출 : info@koreaunited.us or yusook30000@gmail.com
7. 문의: 202-577-3284 (김유숙 회장)

How to apply
1. Submit a two-page essay of letter size or a performance video of less than 5 minutes. (You can choose between Korean or English)
2. 10 participants will be selected and announced on stage, and the final winners will be decided after an on-site evaluation on the day of the competition.
3. Prizes and Awards: The Grand Best Prize Award 1 person $700 / Grand Prize Award 1 person $500 / Excellence Awards 3 people $200 / Encouragement Awards 5 people $100
4. Qualification: 7th - 12th Grade
5. Submission Period: From Saturday, October 5, 2024, to Friday, November 15, midnight
6. Submission and Inquiries: info@koreaunited.us or yusook30000@gmail.com/ 202-577-3284 (President Yusook Kim)

결선 및 유명 전문가와의 통일대화
Finals and Unification Dialogue with Experts
• Contest Date and Time: Friday, December 13, 5:00 PM - 8:00 PM
• Location: Korean Community Center, 2nd Floor, Main Auditorium (6601 Little River Tupk. #210, Alexandria, VA 22312)

주최: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김유숙 회장, 지순자 부회장, 순스틸 총무,에스더김 고문,이현승 자문

항소법원에 한인 판사

뉴섬 주지사, 미셸 김 임명
카운티법원 판사로 6년 재직

LA카운티의 미셸 C. 김(사진) 판사가 가주 제2지구 항소법원 제1부 배석 판사(Associate Justice)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재직 중이던 김 판사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서 재직해 왔다. UCLA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LA 카운티 국선변호사 및 대체 국선변호사로 근무하며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김 판사는 지역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수년간 여러 비영리 단체와 법률 관련 협회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리더로서 기여했다. 현재도 여러 법률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UCLA 동문회 이사회에도 몸담고 있다.

한편, 김 판사는 빅토리아 D. 체니 판사의 은퇴로 인한 공석을 채우게 된다.

장수아 기자

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보건국, 최근 클리닉 5곳 조사
보톡스·필러 불법 시술 여전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8월 구인건수 소폭 증가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8월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전월 771만 건(767만 건에서 수정) 대비 33만 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0만 건 감소한 수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시장 일자리는 2022년 3월 1220만 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2020년 초 팬데믹 전후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동남부 항만 47년만에 파업 … 36개 항구 올스톱

JP모건 "하루 50억 달러 손실"
인플레 등 경제 여파에 주목
백악관 "소비자 영향 제한적"

뉴워크 항구 터미널 외부에서 파업하는 국제항만노동자협회 노조원들. [로이터]

항만 노동조합이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동부 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나선 것은 1977년 이후 47년 만의 일이다.

항만 노조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이날 오전부터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에서 소속 노조원 2만5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만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멈춰섰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 끝난 단체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노조는 6년 동안 임금 77% 인상을 원했고,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는 6년간 50% 인상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 폭 외에도 일자리를 위협하는 항만 자동화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해럴드 대기트 ILA 위원장은 "정당한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USMX는 파업에 따라 볼티모어·보스턴·휴스턴·앨라배마·뉴욕 등 14개 항구에서 운영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식량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이 중단되면 운임이 오르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재점화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예상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관련 항만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양측에 직접 전달하도록 담당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붕괴 태스크포스(TF)에 회의를 매일 열고, 파업으로 인한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백악관이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가장 친노조 성향이라고 자칭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파업을 제한하는 '태프트하틀리법'을 이번 파업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건은 노사 간 단체교섭"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내상공회의소는 파업 여파 등을 고려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채혜선 기자

한국인 미국 내 보유 자산 67억불 육박

신고액 491억 달러로 '뚝'
예금·주식·가상자산에 몰려

한국인의 해외 자산 중 미국에 보유한 자산이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세청(NTS)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서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자산별 신고금액으로도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국내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의 경우 미국에 보유자산이 66억7000만 달러(8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전체의 69.8%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법인의 경우는 85억6000만 달러(11조3000억원)를 미국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비 비율은 27%다. 20.8%를 차지하며 2위에 오른 일본의 66억2000만달러(8조7400억원)를 큰 차이로 따돌린 수치다.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의 감소가 눈에 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이 총 4957명, 신고금액은 491억6000만달러(64조9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412억1000만달러(186조4000억원) 대비 각각 462명(8.5%)과 920억4000만달러(121조5000억원·65.2%)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올해 1043명이 총 78억8000만달러(10조4000억원)를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1432명, 990억9000만달러(130조8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이 389명(27.2%) 감소하고, 신고금액은 912억1000만달러(120조4000억원·9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신고자는 4152명이 총 124억2000만달러(16조4000억원)를 신고해 지난해 대비 413명(9.0%)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59억8000만달러(7조9000억원·32.5%) 줄어들었다. 개인 신고자 중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1981만달러(261억6000만원)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10%가 1인당 평균 38만6000달러(5억1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이다.

올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유형은 예·적금(2767명), 주식(1657명), 가상자산(104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178억8000만달러·23조6000억원), 예·적금(156억달러·20조6000억원), 가상자산(78억8000만달러·10조4000억원) 순이었다.

조원희·조문규 기자

약국 체인 CVS 3000명 감원

비용 절감·기술 투자 집중
매장·약국 등은 해당 안 돼

부진한 실적에 시달리던 대형 약국 체인 CVS가 약 3000명을 정리해고 한다.

대형 약국체인 CVS가 약 3000개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는 전체 인력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축 대상은 주로 본사 직원으로 매장, 약국 및 유통센터 등 일선에서 일하는 직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V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비를 줄이고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해 약 20억 달러의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고 CNN이 1일 보도했다.

전국에 약국체인점을 운영하는 CVS는 2021년에 2022~2024년 사이 약 900개의 매장 폐쇄를 발표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약 5000명을 해고하며 대대적인 직원 감축에 나섰다.

CVS의 연이은 대형 해고는 약국 업계의 지속적인 혼란, 규제 압박,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기대 직면 등 영향이다.

업계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약국 체인은 처방약에 대한 수익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간식과 생활필수품 구매 고객이 아마존, 월마트, 타깃, 코스트코 같은 대형 체인점의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또한 달러 제너럴같이 1달러 저가 소매매장의 빠른 성장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일부 사업에서 이미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CVS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AI 기술과 로봇 공학에 추가 투자를 해서 자동화를 통한 비용을 절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은영 기자

'골프 전설' 박세리, 미국 밴 플리트 상 수상

한·미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과 공동수상

밴 플리트상 수상자인 박세리 전 골프선수(왼쪽)와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 [사진 휠라홀딩스]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한국과 미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더플라자 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박세리에게 밴 플리트상을 시상했다.

밴 플리트상은 1992년부터 매년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박세리와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이 공동 수상했다. 한국 여성이 이 상을 받은 것은 박세리가 최초다. 박세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5승,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헌액, 미국골프협회 밥 존스상 수상 등의 이력을 남겼다. 은퇴 후에도 매년 미국과 한국에서 주니어 대회를 개최하며 후진 양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세리는 "과거보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에 이 상을 주신 걸로 생각하겠다"며 "스포츠를 넘어 그 이상의 협력과 공존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일부 신형 아이폰 16 품질 논란

소비자들 "터치스크린 무반응"
iOS업데이트 구형도 동일 증상

지난달 시판에 들어간 애플의 신형 아이폰 16 시리즈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이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레딧에 게재된 사용자들의 이슈 제기를 인용해 아이폰의 핵심 기능인 터치스크린을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사용자들에 따르면 새롭게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 근처 부위를 터치하거나 손을 올려놓고 있을 경우 다른 손으로 스크린을 조작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전문 웹사이트 9투5맥에 따르면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사용자들도 스크린 탭 또는 스와이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9투5맥은 "운영 소프트웨어 iOS의 우발적 터치 거부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민감해 터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사용자가 실수로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터치하면 시스템의 터치 거부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터치스크린 이슈는 아이폰의 최신 운영시스템인 iOS 18로 업데이트한 구형 모델에서도 일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애플에서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낙희 기자

보먼 "금리 인하 신중히 접근"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국내 근원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다며 통화정책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보먼은 조지아은행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2% 목표치를 불편하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7% 올랐다. 이후 7월까지 근원 PCE 가격지수는 꾸준히 전년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보먼은 물가는 여전히 소비자 심리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다며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 소비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식량과 에너지, 주택에 사용하고 있고 이들은 이같은 유형의 지출을 지원할 여분의 저축이 없다고 우려했다.

텔아비브 전철역서 총격 테러

6명이 숨지고 12명 부상

이스라엘 텔아비브 총격범들 [와이넷 캡처]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에서 총격 테러로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와이넷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텔아비브 야파 지구의 에틀리히 경전철역에 정차한 열차에서 괴한 2명이 내려 거리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기차역 보안 인력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사살했다.

거리에 설치된 CCTV에는 범인들이 어깨에 돌격소총을 메고 시민들을 겨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AP통신은 언급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며, 그들의 출신지를 파악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목전 '민주화 요구 학생 대학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가 '20세기 멕시코 최악의 정치적 참극'으로 꼽히는 1968년 학생 시위대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취임 첫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56년 전 오늘 멕시코시티 틀라텔롤코 지역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대학생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로서, 우리 정부는 오늘 이 사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968년 10월 2일 사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공식 문서에 서명했다. 해당 문서는 관보에 게시된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내무부 장관은 "이 반인도적 범죄는 공권력에 의해 고안, 실행, 은폐됐다"며 "이런 이유로 멕시코 국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희생된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10.2 대학살' 혹은 '틀라텔롤코 집단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은 멕시코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둔 1968년 10월 2일 일어났다.

대학생들은 당시 제도혁명당(PRI)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대외 이미지 개선을 노렸던 구스타보 디아스 오르다스(1911~1979) 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짓밟았다.

저격수를 동원한 군의 발포로 당시 수백명이 숨진 것으로 대학생 단체와 인권단체는 추산했다. 당국은 그러나 사망자를 38명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은폐한 탓에, 아직도 정확한 사망자 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멕시코 민주화 운동과 정치 변혁 필요성을 웅변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

앞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도 틀라텔롤코 사건에 대해 국가수반으로서 피해자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학교수였던 제 어머니도 당시 민주화 운동 대학생들을 돕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가족사를 공유하며,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국가의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동분쟁 격화에 "유가 100달러 갈수도"

현지시간 1일 스라엘의 아이언돔 대미사일 시스템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 [로이터]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유 공급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리서치업체 MST 마퀴의 사울 카보닉 에너지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1일(현지시간) CNBC에 "중동 분쟁 확산이 결국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석유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상황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석유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해왔다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번에는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세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카보닉은 현재 중동 분쟁이 이란과 직접 관련이 있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최대 4%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또 다른 공격이나 제재 강화가 있을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로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미사일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장중 5% 이상 올랐다가 상승 폭을 줄여 2% 상승으로 마감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대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라피드안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레바논과 이란으로 전선을 확장하면서 전쟁은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불균형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구조화된 모형과 자료로 위험 지수를 산출하는 지오퀀트(GeoQuant)의 연구 책임자 로스 샤프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추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위험지수가 최근 미사일 공격 이후 크게 뛰었다면서 "이는 훨씬 더 큰 사건이 나타날 것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비손 인터레스트의 최고정보책임자(CIO) 조시 영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이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기업 콘티넨털 리소시스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 미국 셰일오일 분야의 거물로 평가되는 해럴드 햄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수년간 전략비축유를 고갈시켰다면서 현 정부를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잘 알려진 햄 이사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바이든 정부가 전략비축유를 고갈시키고 국내 생산을 손상시켰으며 외교 정책도 엉망으로 만들어 미국이 중동발 유가 충격에 비정상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 "이스라엘 보복 위해 무기 공급해야"

미치 매코널

린지 그레이엄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200발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쏜 것과 관련해 미 정치권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화당에선 이스라엘이 더욱 강력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필수 탄약 공급을 보충하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테러 설계자와 그들의 대리세력이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 민간인과 홍해의 미군 인원에 닿기 전에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격추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친 트럼프 인사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여야 지도부가 하원을 소집해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무기 원조 법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화당에 비해선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이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선 입장을 같이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지지하면서 계속 동맹인 이스라엘의 곁을 지킬 것"이라면서 "역내 상황 전개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란과 그 대리세력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반응에는 내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안보 분야에서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 강경한 수사와 달리 여야 지도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 운동에 전념 중인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는 등의 실질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대신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 더 강력하게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측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대신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양새라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한편, 미 의회 내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의원인 라시다 틀라입 하원의원(미시간)은 소셜미디어에 방위산업체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올리면서 "정말로 구역질이 난다"고 적었다.

그는 "의원들에게 전쟁 제조업 관련 주식 소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더 많은 폭탄을 보내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찬성표를 던질 때마다 그들은 개인적 이득을 거둔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 내 군사시설 등을 겨냥해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동 주둔 미군 등의 도움을 받아 큰 피해 없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재보복을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독거노인 쌀 전달 행사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 명절 추석 행사 결산 보고 (2024년 9월 17일)

감사 최희대

수입 내역 (후원자)	금액	지출 내역	금액
1. 연방한인총연합회 (정명훈 회장)	$500	1. 쌀구입 100 포 (15LBS)	$1,110
2. 한인여성재단 (이사장 박미숙)	$300	2. 후원 광고 및 결산보고 광고	$850
3.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김진아)	$300	3. 행사후 노인 아파트 리더 및 임원 식사	$230
4. MD 아리랑 노인복지센터	$300	4. 행사후원 인쇄물 발송	$190
5. 사임당 소사이어티 (장세희 회장)	$300	5. 노인복지센터 수박 배달	$200
6. 강수자 (노인회 이사)	$200		
7. 석은옥 회장 (강영우박사 재단)	$100		
8. 글로벌 어린이재단 VA 지회장 (김남숙)	$100		
9. 김용하 (MD 몽고메리 회장)	$100		
10. 이상주 (노인회 사무총장)	$100		
11. 최충명 (필라델피아 목사)	$50		
12. 무명	$200		
합 계	$2,750		$2,580

수입 $2,750 – 지출 $2,580 = 잔액 $170 (* 나머지 잔액 170불은 년말 행사에 사용 예정)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日本ペストリーとパン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OCT. 3rd - OCT. 10th, 2024

엄청 인기 많은

부드럽고 달콤한

일본빵 & 스페셜

JAPANESE BREAD (PASTRY ROLL)

BEST SELLING BREAD

D-Plus

텐넨 코보 빵 (초코/메이플 시럽/커피/브라운 슈가/갈은팥/밀크/덩어리 팥/녹차/블루베리/딸기

Japanese Bread - Tennen Koubo

(Chocolate / Maple / Coffee / Brown Sugar / Koshi-Ann / Hokkaidou / Milk / Tsubu-Ann / Green Tea / Blueberry / Strawberry)

4FOR $5.00

2.82 OZ

편집 중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Sterling, VA	Centreville, VA	Chantilly, VA	Annandale, VA	Ashburn, VA	Herndon, VA	Ellicott City, MD	Catonsville, MD	Rockville, MD	Gaithersburg, MD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65	56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460 Elden Street, Herndon, VA 20170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원유 공급 과잉 속 내년 유가 배럴당 60달러 전망도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의 방향이 완전히 안개 속이다. 중동 전쟁의 위기감이 한껏 고조되며 1일(현지시간) 유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 편에서는 산유국 간 치킨 게임이 본격화하며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 유가 하락을 막으려 2년여 감산을 주도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의 시동을 걸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가 12월부터 매달 하루 평균 8만3000만 배럴을 더해 내년 12월까지 100만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FT는 "사우디가 배럴당 100달러라는 비공식적인 유가 목표치를 포기할 것"이라며 "이는 사우디가 저유가 시대를 받아들인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배럴당 100달러'라는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재정 균형을 위해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네옴시티 개발 등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등을 위한 재정 투입과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그 정도 유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를 통해 2022년 11월 이후 6차례에 걸쳐 감산을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 행진했던 국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산유국들이 뭉친 것이다. 실제로 2022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99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자 유가 방어를 위해 감산을 택했다.

OPEC+의 감산에도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기대만큼 뛰지 않았다. 배럴당 80달러 전후를 유지했다. 최근에는 낙폭이 더 커졌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달 10일 배럴당 65.75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가 약세로 인해 지난 6월 OPEC 회의에서 3분기 이후 점진적이고 자발적인 감산 폐지를 발표했지만, OPEC+은 자발적 감산을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유가 방어 위한 감산에도 효과는 미미

셰일 가스의 등장과 석유 탐사 및 시추 기술 발전으로 석유 시장의 지형도가 변하며 사우디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감산은 사우디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감산은 유가 상승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꿰찬 미국 등 비(非)OPEC 국가가 시장을 잠식하며 사우디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그 결과 감산을 통한 재정 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OPEC+ 총 감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의 감산 부담을 사우디가 감당하면서 국내총

미국 등 비OPEC 점유율 잠식에 사우디 "연말 증산"… 시장 출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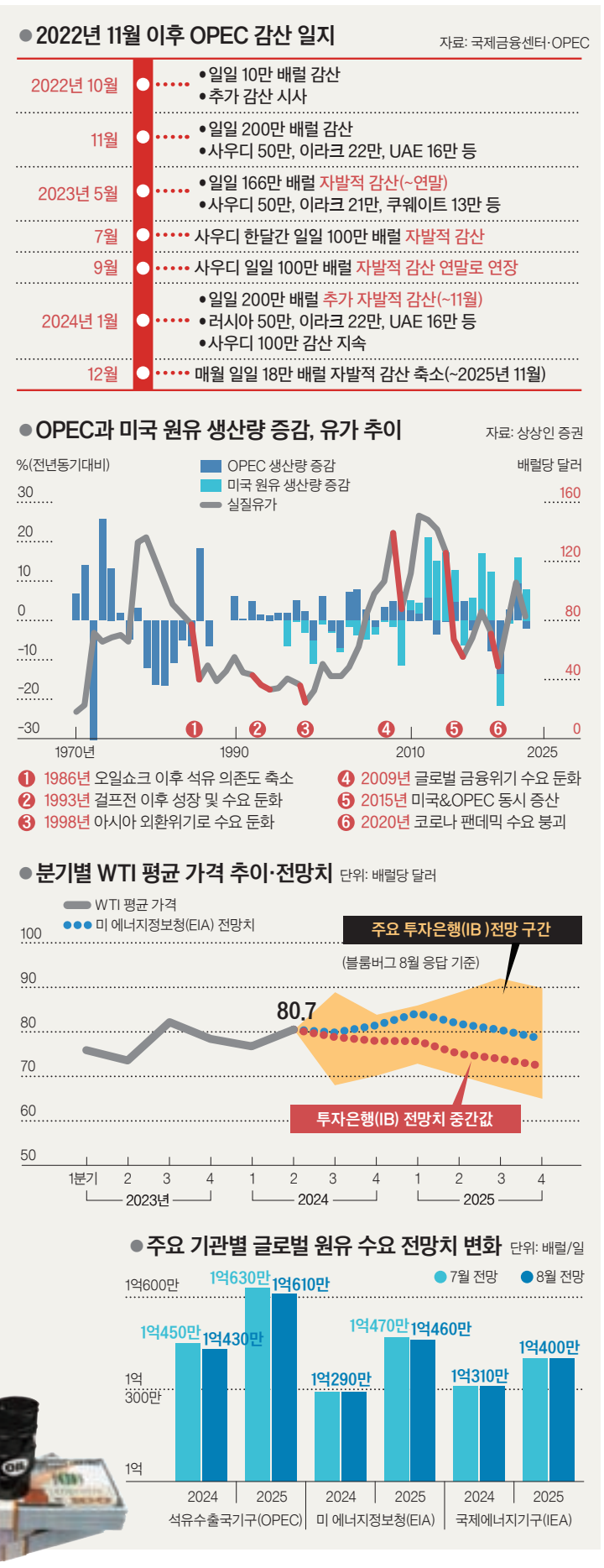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우려로 주요 IB, 유가 전망 하향 조정해

미국 원유 재고 1년내 가장 낮아 중동전 위기감에 가격 오를 수도

생산(GDP)과 석유 부문의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루 최대 12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의 일일 생산량은 최근 890만 배럴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가 약세에 생산량까지 줄인 탓에 수입이 줄어든 OPEC+ 회원국 내 균열도 커지고 있다. 이라크 등 일부 회원국은 감산 할당량을 넘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아프리카 2대 산유국인 앙골라는 감산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1월 OPEC을 탈퇴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란은 핵 합의 이전 수출량을 대부분 회복하며 OPEC 내 감산 공백을 차지하는 모습"이라며 "재주는 사우디가 부리고 이득은 이란이 취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유가를 좌우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다.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는 떨어진다. 상상인증권에 따르면 1983년 이후 저유가 국면은 6차례였다. 1986년과 걸프전 이후였던 1993~94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2015년의 저유가는 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산유국이 생산을 늘리면서 빚어졌다. 86년의 저유가 국면은 80년대 초 북해와 알래스카·멕시코 등의 유전 개발과 시장 점유율 고수를 노린 OPEC의 증산으로 전개됐다. 2015~16년 OPEC이 저금리 상황 속 셰일 원유 생산을 늘린 미국에 맞불을 놓기 위해 생산을 늘리자 유가가 자유낙하했다. 반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저유가 국면은 강한 경기 침체로 인해 공급을 줄여도 유가가 하락한 상황이다. 수요 급감 때문이었다.



경기 침체 공포 … 수요 전망 낮춘 OPEC

저유가 국면의 공식을 현재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OPEC+의 감산분을 채워왔던 비OPEC 국가의 원유 공급은 여전히 탄탄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생산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늘었던 브라질의 원유 생산량도 올해 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초대형 유전이 발견된 가이아나의 원유 생산도 전년보다 54% 증가한 일일 6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고, OPEC의 감산 되돌리기가 본격화하며 공급이 늘면 유가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영국 원유 중개회사 PVM의 애널리스트인 타마스바르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OPEC 안팎에서 공급 전쟁이 벌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급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유국 간 치킨 게임이 공급 측면에서 저유가 시대를 부를 요건을 갖춘 셈이다.

수요 측면에서 저유가를 야기할 변수인 경기 둔화의 먹구름도 짙어지고 있다. 경기의 바로미터인 국제 유가는 이미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 수요 감소 우려는 유가 하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며 OPEC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과 2025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췄다. OPEC조차도 9월 전망에서 올해 세계 수요 증가율을 기존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PEC이 수요 전망을 낮춘 것은 12개월 만에 처음이다.

1~8월 중국 원유 수입, 3.1% 감소

원유 수요 감소의 경고음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은 중국이다. 지난 1~8월 중국의 원유 수입은 1년 전보다 3.1% 줄었다. 8월에는 1년 전보다 7% 감소했다. EIA는 올해 초 중국의 원유 수요가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월에는 이를 0.7%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 급증과 LNG 트럭 확산 등 운송 연료 부분의 에너지 전환도 원유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미국 대선 이후 본격화할 미·중 무역 마찰과 대중 제재 우려까지 더해지며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수요도 부진하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EIA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요 증가율(0.2%)은 전년(1.3%)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 시장 냉각과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는 것도 원유 수요 감소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 소비에 있어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이란 공격에 브렌트·WTI 3.5% 상승

그러나 유가가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장 최근 커지는 중동의 전쟁 공포는 유가를 끌어올릴 요인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선 1일(현지시간) 브렌트유와 WTI 가격은 전날보다 각각 3.5%씩 뛰었다. 다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줄어든 미국 원유 재고는 유가 하락을 방어할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 6월 중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중순 4억1800만 배럴로 최근 1년간 가장 낮았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유가 하락이 공급자인 미국 탐사·생산(E&P)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만큼 미국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재비축을 위한 석유 매입가 하단을 배럴당 67~72달러로 설정했다"며 "지난해처럼 전략비축유 매입 단가가 국제 유가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현옥 논설위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미주 최초 한인촌
파차파 캠프 사진전시회

한인커뮤니티센터(김태환 이사장) 주최, 멜론재단 후원,
UC 리버사이드 대학 장태한 교수의 기획으로 개최되는
이번 사진 전시회를 통해 미주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미주한인선조들의 활동을 워싱턴지역 동포들뿐만아니라
미주류 사회에도 널리 소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파챠파 캠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파차파 캠프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 및 장태한 교수 강연회

전시 일시 10월 19일 ~ 11월 27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40일간)

전시 장소 한인커뮤니티센터 2층 대강당

오프닝 리셉션 일시 및 장소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RSVP에 한함)
한인커뮤니티센터 1층 연회실

문의 김유숙 사무국장 (202-577-3284)

'파차파 캠프'는 1905년경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 도산 안창호가 세운 곳으로 미국 최초의 한인 정착지였다. 1905년부터 1913년 한국인들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파차파 캠프가 번창했던 감귤이 풍부한 리버사이드 시로 몰려들었고 이곳은 1918년까지 존재했다. 이 정착지는 전성기에는 약 300명의 한인이 거주했다.

주최: 한인커뮤니티센터
특별후원: Mellon Foundation 멜론재단

이란 미사일에 피해 미미했지만… 이스라엘 요격망 금갔다

공군기지·모사드본부 인근서 폭발
한발이라도 지휘부 명중 땐 치명 피해
이란, 4월 공격의 2배 규모로 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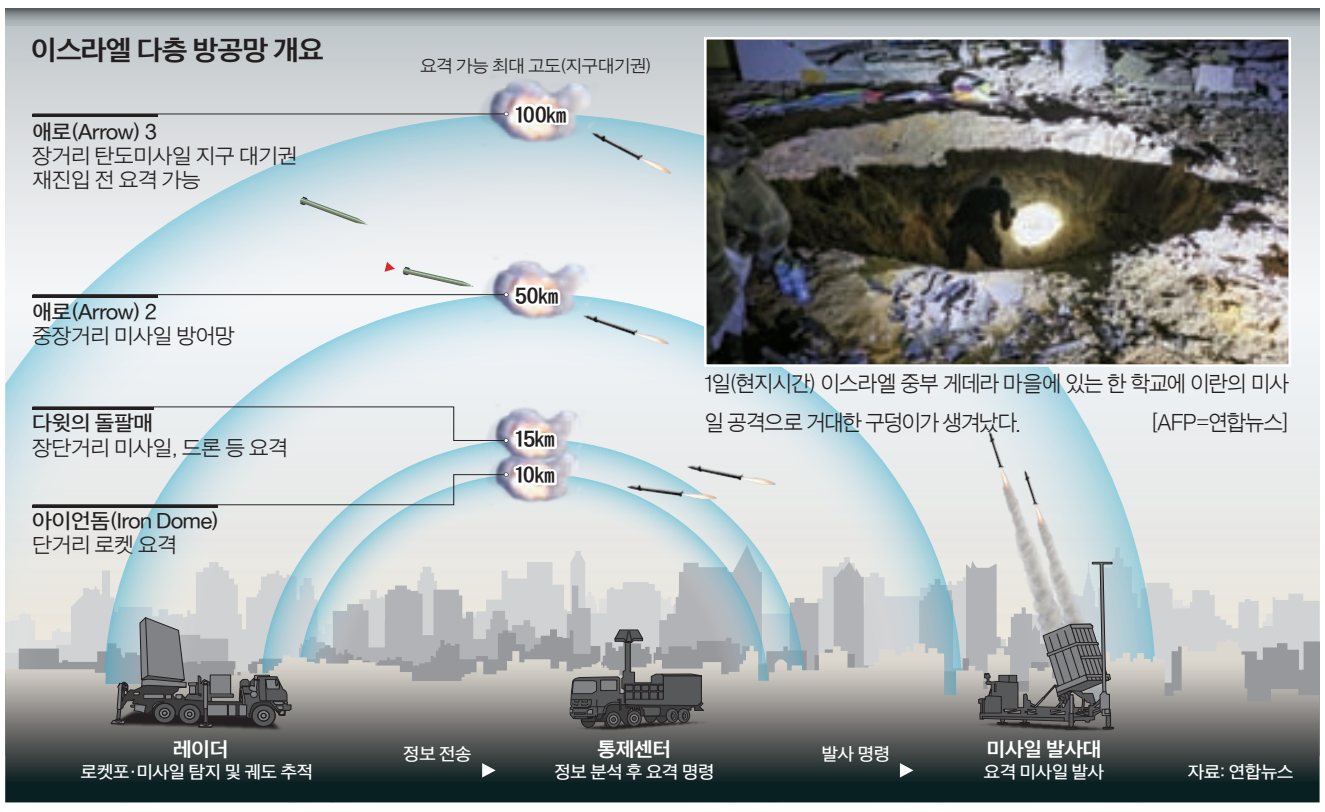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쏜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요격 미사일에 대부분 격추돼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는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와 네게브 사막의 네바팀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 인근에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방송·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이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미사일 파편에 맞아 숨졌고, 텔아비브 등에서도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체계가 작동한 덕분에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일부 타격이 있었으나 피해는 경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란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정보·군사 시설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CNN은 "(SNS 동영상 분석 결과)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모사드 본부로부터 1㎞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여기엔 주거·상업시설도 밀집돼 있어 폭발 지점에서 수백m 인근엔 주차장과 영화관도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기지에도 최소 9발의 미사일 폭발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피해는 대부분 경미하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국장은 "이란의 지난 4월 공격과는 달리 더 많은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란의 미사일이 1발이라도 정부 청사나 모사드 본부 등 주요 전쟁 지휘부를 제대로 타격할 경우 이스라엘로서도 치명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공망이 잘 갖춰져 있다 해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모두 방어하는 건 쉽지 않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큰 피해를 줄 것 위주로 요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잘 작동한 건 이 같은 알고리즘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중부 게데라 마을에 있는 한 학교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났다. [AFP=연합뉴스]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스라엘 방공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의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극초음속 파타흐-1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지난해 파타흐-1을 공개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첫 극초음속 미사일로 음속의 15배 속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기자

이란 미사일 공격에 안보리 긴급회의… "중동 분쟁격화 중단해야"

유엔 총장 "시간 얼마 없어"…황준국 대사 "안보리 심판의 시간, 행동 나서야"
미국 대사 "이란, 추가 도발 말라" 경고…이란 대사 "적법한 자위권 행사였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한 다음날인 2일 긴급히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 지역의 분쟁 격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대사도 상황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안보리가 당장 중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확전 일로에 놓인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

황준국 유엔대사

아미르 이라바니 이란대사

대니 다논 이스라엘 대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브리퍼로 참석해 "죽음을 부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발생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중동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분쟁 격화의 끔찍한 순환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준국 대사도 분쟁 격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구테흐스 총장의 연설에 공감을 표하면서 "안보리가 심판에 순간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다른 분쟁과 달리 수많은 국가가 휘말릴 우려가 있고 지리적 한계가 불분명해 국제정치, 경제, 나아가 인류 전체에까지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는 이제 단결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도 안보리 회원국들을 향해 "안보리가 단결해 긴장 완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비난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 행동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었다"고 강조한 뒤 "분명히 말한다. 이란 정권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란과 그 대리인들에게 미국을 겨냥해 또는 이스라엘을 추가로 겨냥해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 구성원으로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대사는 이란이 최근 몇 달간 이스라엘의 도발 행위에 특별한 자제력을 발휘해왔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처럼, 레바논과 가자, 시리아, 예멘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다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도 상대국에 분쟁 격화의 책임이 있다고 공격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테러리스트 정권에 전례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해왔다"고 비난하며 "추가 확전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명확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전날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맞선 대응 조치로 이스라엘의 군사 및 안보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사실을 알렸다며 전날 미사일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의 자위권 행사 주장을 반박했다.

다논 대사는 이날 안보리 전 약식 회견에서 "이란의 공격은 민간 시설을 향한 계산된 공격이었다"며 "이스라엘은 이 같은 공격을 참지 않을 것이며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집보험 |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센스 도와드립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United National Insurance Group · Universal Property · Travelers · Stillwater · Bristol West Insurance Group · Liberty Insurance · National General Insurance · The Hartford · Berkshire Hathaway Guard Insurance Companies · Progressive · Nationwide · Allstate · Mercury Insurance · Grange Insurance · Encompass · Employers America's small business insurance specialist · Alfa · AIG

한동훈 '김대남 의혹' 조사 지시… 특검 재표결 앞, 윤·한 갈등 증폭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건희 특검법, 이르면 내일 재표결
여당 "해당행위" 공격사주 의혹 조사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공격을 유튜버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2일 지시했다. 한지아 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당 차원의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최근 공개한 녹음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7월 10일 당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대표가 '총선용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시행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그는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자 무시 사건을 거론하며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며 "이번에 그걸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이틀 뒤 이 기자는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을 도왔다.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행정관은 곧장 탈당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지지 모임인 '윤공정포럼'에서 활동하다가 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됐다. 지난해 10월까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다.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전 행정관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신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 정무실장으로 활동할 때, '윤공정'이라는 팬클럽 관계자로부터 캠프 내에 팬클럽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추천받은 사람이 김대남이었다"며 "정무실장이었던 저는 조직부본부장이었던 강승규(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연결시켜 줬고, 김대남은 강승규와 함께 활동하다가 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의 탈당에도 국민의힘은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으로, 그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곽규택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과 대통령실을 이렇게까지 욕보인 이 사람과 도대체 누가 연관이 돼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로키(Low-Key)'로 대응하면서 당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영부인과 전혀 연락이 안 되는 행정관 실무 직급이었다"며 "관련한 일련의 주장은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말했듯 과장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김 전 행정관 의혹은) '한동훈 대 대통령실'이 아닌 '한동훈 대 나경원 프레임'이 맞다"며 "김 전 행정관은 나 의원의 승리를 위해 한 대표의 약점과 김 여사를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4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김대남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탈표 최소화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무기명 투표인 데다 8명만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하면 여권이 공멸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특검법과 김대남 논란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기정·윤지원 기자

윤 대통령 "민생국감 됐으면"… 참석자 "한동훈 언급, 일절 없었다"

한동훈 뺀 원내지도부와 2시간 만찬
윤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
"북 도발에 한·일, 한·미·일 단합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과 2일 만찬을 했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난 지 8일 만이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35분부터 2시간15분가량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고, 원외인 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치러질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정쟁을 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선 "고령화 사회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이 의사 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행사를 두고는 "연간 60조원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 국민이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일 수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35분 만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31명의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6명, 여당에선 추경호 원내대표 등 2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콜라로 건배했고, 건배사 구호는 '위하여'였다. 만찬 막바지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 참석자들은 맥주를 마셨다고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안) 행사,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 예민한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 언급했냐는 물음에는 "제가 듣기론 일절 없었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만찬에 대해 "추 원내대표의 제의를 대통령실에서 수용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한 대표도 이번 만찬에 대해 흔쾌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김 여사 및 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약 15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정·박태인·윤지원 기자

민주당, 금투세 폐지론 확산
"당 정체성 문제" 반발도 커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 아닌 폐지로 방향을 틀면서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2일 중앙일보에 "시행과 유예를 두고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지도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단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폐지는 너무 성급하다. 한 번 더 유예하면서 각종 과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주의 4.0 등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좋은미래는 이재명 대표가 유예를 시사해 논란이 촉발된 7월에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었다.

폐지론도 만만치 않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데, 여론과 시장의 반발은 너무나 크다"며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의원은 "지금 몇 년 유예하면 다시 지방선거와 대선에 맞물릴 수 있다. 그때 또 발목을 잡힐 바엔 일단 폐지하고 정권을 잡은 뒤 다시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 시행론자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 이후, 우리가 덤터기를 쓸 게 아니고 폐지하는 게 나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꽤 있다"며 당내 기류 변화를 인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더 오래 끌면 곤란하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내 폐지론이 대두한 배경에 대해 "그간 자체 조사를 보면 30·40·50대 남성층에서 '금투세 폐지' 요구가 크다"며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게 당을 위해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연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제처럼 당 지도부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견이 팽팽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처럼 다수결로 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6.1%가 '폐지'를 원했다. '예정대로 시행'은 30.6%, '유예'는 17.7%였다. 김정재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청소년 성장클리닉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 DELTA · ASIANA AIRLINES · UNITED · AIR CHINA ·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채용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올가을 마지막!!! 단풍여행
6차 10/29~11/8
최고급 호텔! 리무진 버스! 모든 옵션 포함!
10박 11일 / $2990+항공

2025
1차 3/25~4/04
2차 4/15~4/25
3차 6/17~6/27(영어)
4차 9/16~9/26
5차 10/14~10/24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고국 1~6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9박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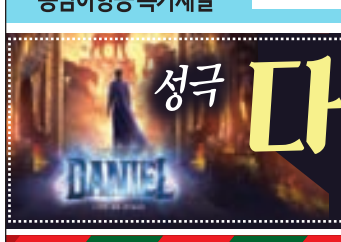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3박 5일 $599+항공	3박 5일 $590+항공	3박 5일 $499+항공	3박 4일 $690+항공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출발: 격주 수요일	출발: 격주 수요일	출발: 격주 일요일	출발: 격주 목요일	출발: 격주 수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옴쇼,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팡아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쇼,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 엔뜨,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둥사원 수상인형극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교, 쩐가사당, 풍흥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야류해양 국립공원, 쟈우펀거리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원더스, 핸더스 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부터(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어)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27~7/04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2290(항공포함)
8/14~8/20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090+항공
8/29~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8~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2190(항공포함)
9/09~9/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9/16~9/26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9/30~10/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9/30~10/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10/07~10/13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9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1~10/30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 9박10일 $22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11일 $3590+항공


성극 다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0/17, 11/14, 12/12 $199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라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 시티 스펙타큘러 쇼 관람
12/23~24 1박 2일 $499

스테이크 특식저녁, 브루클린 덤보 야경 포토타임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섬/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백 10/7, 10/14 $950
당일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0/17, 21, 25, 26 $159 단체여행 환영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백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월출발
5박 6일 $1350
대형버스 출발: 10/7, 10/14, 10/28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3박 4일 $899

동부 명소 핵심만 쏙쏙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수출발
알래스카 6박7일 $1550+항공 월출발
옐로스톤 3박4일 $930+항공 월금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투자 30조 확대 … 전방위 내수 살리기

〈5년간〉

정부 연내 24조 투자사업도 지원
중기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공사비 상승률은 연 2% 내 관리
업계 불공정 행위도 점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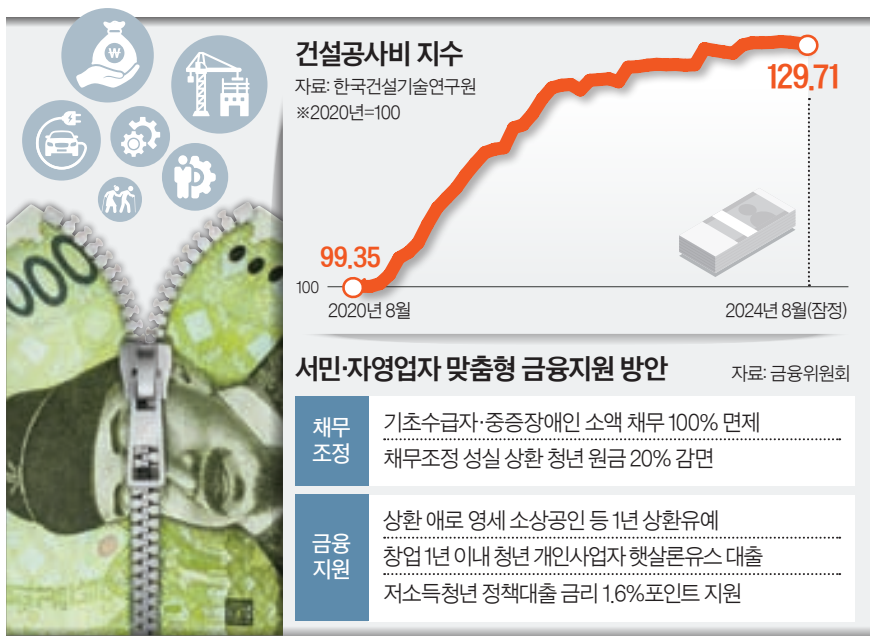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투자·건설·소비 각 분야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예정돼 있던 2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앞당기고, 민간이 30조원 규모의 건설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출경기 호조세를 내수 회복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건설은 지난해 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며 "소비는 회복 조짐이 있고 소비 여력도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한 부문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 부문에서 올 4분기 안에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주요 사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줘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당장 올해 안에 공공기관 투자를 더 늘린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석 민생대책 당시 추가로 발표했던 7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에 인프라 투자 등 1조원을 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민간의 건설투자를 30조원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보증 공급을 늘려주고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신설해 민간 자금 유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치솟은 건설 공사비를 안정화할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3년간 30% 오른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자재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계의 '자율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업계 불공정 행위도 점검에 나선다.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 인력의 건설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한시(2025~2026년) 확대한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만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 대책으로 오는 11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국고보조금에 10%를 추가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에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준다. 먹거리 체감물가와 관련해서는 중국산 배추 수입을 정부 직수입 물량 1100t에 민간 수입업체에 운송비를 지원해 3000t을 더 수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추·무 관세 면제(할당관세)를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김원 기자

취약층 소액 채무 전액감면, 자영업자엔 11조 추가 지원

〈500만원 이하〉

서민금융 이용 5만명, 1년 상환유예
저소득 청년엔 2%대 금리 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엔 11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고금리가 지속하는 데다 내수 경기까지 부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받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1년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 대상에 창업 청년까지 포함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 등은 2%대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간 1만30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해 채무조정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대통령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 "부산도 야당 구청장 필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가보니
보수의 전통적 텃밭 … 3파전 양상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윤일현 국민의힘,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왼쪽부터)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각 후보 SNS]

"윤석열이가 잘 한건 아인데, 이재명이가 이기면 나라가 혼란할끼고…"

28년째 부산 금정구의 서동미로시장에서 보리밥 식당을 운영하는 이미경(60)씨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시장 입구에서 청과물을 파는 서동휘(63)씨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 뻔질나게 오면 뭐하노. 시장도, 동네도 30년째 고대로"라며 "투표도 때리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정권 심판론의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뽑는 4곳의 선거 중 유일하게 영남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금정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민주당 계열이 당선된 적 없는 보수 텃밭이다.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간 금정구민들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 마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 나쁘다 아입니까." 지난달 30일 퇴근 시간대 부산대역 앞에서 만난 홍선옥(59)씨는 "덜 나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30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윤문수(65)씨는 "그래도 여당을 뽑겠지만, 부산서도 대통령 인기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64%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는 '로우키' 전략이다. 윤 후보는 선거사무소 외벽에 여권 거물급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걸지 않았다. 그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면서 쌓아온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승부를 겨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제1 공약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다. 2017년 침례병원이 문 닫은 뒤 금정구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없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침례병원 재개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10·16 재보궐, 정권에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25일에 이어 3일에도 부산을 찾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에만 7차례 부산을 찾아 류제성 후보를 도왔다. 야권 단일화는 선거 막판의 변수다. 조 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서 "후보 토론회 후 합의된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2일 "논의는 없었다"고 반응했다. 부곡동에 거주하는 김태기(57)씨는 "부산에도 야당 구청장 한명은 있어야 한다"며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창훈 기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CORE Physical Therapy&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 • 메디케어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틀리 지역]

양형기준 준수율 99% vs 79%… 법원, 화이트칼라에 후했다

〈폭력범〉 〈금융범〉

44개 범죄 평균 준수율 90~92%
폭력·손괴 등 일반인 범죄는 엄벌
금융·뇌물·선거 범죄는 평균 이하
"법앞의 평등 누가 신뢰할지 의문"

#1.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총수 A씨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소 형량인 징역 3년보다 1년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중장기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산 뒤 되팔아 11억원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권고형 내에서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2. 2022년 9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사기 혐의 재판에서 양형기준상 하한인 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무역회사 대표인 B씨가 2016년부터 2년간 피해자 9명에게 "몽골 사업에 투자하면 10% 수익이 난다"고 속여 5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는 이유로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정했다.

법원의 양형이 금융사기·뇌물·선거 등 이른바 기업인·공직자·변호사·정치인 범죄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무줄 판결' 논란으로 2007년 도입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조차 어기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4개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이 기간 89.9%~92.2%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22년 전체 평균은 92.1%(미준수율 7.9%)였는데, 증권·금융(78.9%), 배임수증재(84.4%), 지식재산·기술침해(84.5%), 공문서(84.3%), 변호사법 위반(86.4%), 뇌물(86.5%), 사기(87.6%), 선거(89.8%) 등 범죄는 미준수율이 두 자릿수로 높았다.

같은 해 폭력(99.2%), 도주·범죄은닉(98.9%), 손괴(97.8%), 교통(97.5%), 공갈(97.2%) 등 일반인 범죄는 철저히 양형기준을 지킨 것과 대조된다.

공문서와 사문서 위변조 등 범죄는 법정형부터 공문서 범죄를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데 양형기준 준수율은 사문서보다 12.8%포인트 낮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문서 위변조는 범행 주체가 공무원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한 해뿐 아니라 조사 기간 모든 해에서 이 같은 추이를 보였다. 특히 2016년 변호사법 위반 준수율(59.5%)은 7년간 조사한 모든 범죄 중 가장 낮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동종 업계라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흔히 '잡범'이라 불리는 범죄에만 기준을 칼같이 지키고, 화이트칼라 범죄엔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처럼 비칠 수 있어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북한, 개성공단 경의선 철교 상판도 뜯었다… 완전 철거 돌입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구간의 철교를 완전히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남북 간 관계 단절을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취재진을 만나 "최근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경의선 철로의 북측 구간 중 (임진강의 지류) 사천강을 가로지르는 철도용 교량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은 임진강 지류인 사천강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철도용 교량을 철거했다. 2월10일(왼쪽)과 9월23일(오른쪽)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교량의 상판이 철거돼 기둥만 남아있다. [사진 구글어스]

통일부가 분석한 민간위성 에어버스의 지난달 23일 사진을 보면 개성공단 부근 판문역으로 향하는 경의선 통일다리와 함께 놓인 철교의 상판이 거의 제거된 채 다리 기둥만 남아 있다. 올해 2월 10일에는 철교가 온전한 모습으로 식별됐다. 북한은 비슷한 시기 경의선 육로에 가로 8줄로 지뢰를 매설하고 흙더미를 높이 쌓아 올리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거쳐 체결 33년 만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만큼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위해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말 평안북도·자강도 등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자강도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례로 민간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의 산간 마을은 수해로 주택 대부분이 매몰됐다. 홍수 이전엔 최소 200채의 가옥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이시바 총리보다 인기있는 영부인

일본 퍼스트 레이디 요시코 여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며 '퍼스트 레이디'인 이시바 요시코(石破佳子·68)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지지통신·아사히신문 등은 이시바의 지역구인 돗토리(鳥取)현에서 요시코 여사의 인기가 이시바를 능가한다고 보도했다.

1956년 도쿄에서 태어난 요시코 여사는 이시바 총리와 게이오대 법대 동급생이다. 재학 당시엔 이시바 총리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학 졸업 후 신문에 실린 이시바 총리 부친의 부고를 보고 조의 전보를 보냈다가 다시 인연이 이어졌다. 둘은 1983년 결혼했고 슬하엔 두 딸이 있다.

밝은 성격과 따뜻한 언행으로 유명한 요시코 여사의 인기는 이시바 총리도 종종 언급할 정도다. 『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2024년)에서 이시바 총리는 "선거에서 후보가 없으면 아내를 내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온다", "선생님(이시바)보다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전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강연회 등 행사에 "내가 가는 것보다 아내가 가는 걸 더 환영한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과 어울리기보다 홀로 정책 연구에 몰두하던 이시바가 챙기지 못한 지역구를 요시코 여사가 챙겼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스승으로 칭하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전 총리에게 요시코 여사와의 결혼을 밝혔을 당시 일화도 유명하다. 다나카 전 총리가 지방 유력가문의 딸을 소개시키려 하자 이시바 총리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요시코 여사는 마루베니 상사에 다니고 있었다. 다나카가 일본 정계를 뒤흔든 뇌물 사건인 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공교롭게도 사건에 연루된 회사 중 하나가 마루베니 상사였다. 다나카 전 총리는 이시바 총리 결혼식에 참석해 요시코 여사를 '마루베니 여왕'이라고 부르며 축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의원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집에 돌아가면 '괴롭네, 힘드네'하는 말을 하게 된다"며 "지금껏 지지해준 것이 아내"라고 말할 정도로 금슬을 자랑했다. 이시바 총리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방송에 함께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이시바의 38년 정치 활동 곁엔 요시코가 있었다.

지난달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아내인 요시코 여사가 2018년 한 여성단체 후원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시바 시게루 트위터]

지난달 27일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개표 결과를 지역구 돗토리현에서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모습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지켜본 것도 그였다. 남편이 2차 결선투표에서 역전 승리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당선 축하 기념사진 촬영 때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꼬집기도 했다. 이날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요시코 여사는 "이시바 시선에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 칭찬만이 아니라 어떤 의견이라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 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신제품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703-256-7671

우리말 바루기

'느지막이'

연휴 여행 시즌이 되면 교통 체증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와 관련해 "차 막히는 것을 생각해 아예 늦으막이 출발하기로 했다" "느즈막이 출발한 덕분에 별로 막히지 않았다" "느지막이 갔다가 하루 이틀 더 있다 왔다" 등과 같은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겠다.

이처럼 시간·기한이 매우 늦다는 의미로 '늦으막하다/느즈막하다/느지막하다' 등의 단어가 쓰이고 있다. '늦으막이/느즈막이/느지막이' 등 부사형도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느지막하다'와 '느지막이'가 맞는 표현이다.

'느지막이'를 '늦으막이'라 쓰는 이유는 이것이 '늦다'에서 온 단어라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늦다'를 활용한 표현이 '늦으막이'이고,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느즈막이'로 보인다.

하지만 '느지막이'는 '늦다'가 아닌 일정한 때보다 좀 늦다는 의미의 '느직하다'에서 온 말이다. '느직하다'를 기억하면 '느지막하다'와 '느지막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낮으막이 중얼거렸다" "나즈막이 속삭여 오는 목소리" 등처럼 소리나 위치가 꽤 나직하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낮으막이' '나즈막이'를 쓰곤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낮다'를 떠올려서 비롯된 표현으로, '나지막이'라고 써야 바르다. '나직하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중앙일보와 나

이계숙
자유기고가

내가 중앙일보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예닐곱 살 때다. 깡 시골인 우리 동네에 어느 날, 말쑥한 차림새의 남자 두 명이 가가호호 방문했다. '중앙일보' 판촉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나름 지식층이었지만 시류에 떠밀려 시골에 정착했던 아버지는 세상 정보에 대한 갈증으로 얼른 구독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판촉 직원들은 '소년중앙' 한 권을 보너스로 주고 갔다. 읽을거리라고는 교과서밖에 없었던 우리 형제들에게 그 잡지는 너무나도 찬란한 선물이었다. 읽고 또 읽어 겉장이 너덜거릴 정도였다. 나중엔 동네 친구들에게도 10원씩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우리 집에 중앙일보는 큰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새벽마다 자전거 멈추는 소리와 함께 털썩하고 신문이 집안으로 떨어지면 우리 집 개 독구가 컹컹 짖어댔다. 그 소리에 온 식구가 눈을 떴다. 아버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누가 나가서 신문 집어 와라"고 하셨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배달된 중앙일보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읽고 그다음 순서는 엄마였다. 한자가 반이 넘었지만 나와 동생들도 학교에 다녀오면 광고까지 열심히 읽었다.

텔레비전도 전화도 없던 시절, 중앙일보는 우리 가족이 세상을 내다보는 유일한 통로 같은 존재였다.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가 외딴집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신문을 통해 접했는데 동네와 조금 떨어져 있던 우리 집에도 오면 어쩌나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난다.

어른의 세계를 훔쳐보는 일도 중앙일보를 통해서였다. 당시 '내 마음의 풍차'라는 최인호의 소설이 약간 선정적인 삽화와 함께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었다. 최인호 특유의 익살이 가미된 내용이었는데 정말로 흥미진진했다. 주인공이 매춘부에게 돈을 주며 자폐아 이복동생의 첫 경험을 주선한 부분에서는 다음 회가 궁금해 잠까지 설쳤다.

그때는 신문 배달부가 매달 수금을 하러 왔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한 살림이었지만 아버지는 신문 대금은 꼬박꼬박 냈다. 멀리까지 신문을 배달해 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불행히도 신문 구독은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 100호 남짓한 우리 마을에서 신문을 보는 집은 딱 두 집, 이장네와 우리뿐이라 타산이 맞을 턱이 없는 보급소에서 배달을 중단한 까닭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신문에서 봤는데'라며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던 아버지의 기쁨도 사라졌고 온 가족이 침울해졌다.

아버지는 궁리 끝에 시내에 있는 고모 집으로 신문을 배달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학교를 파한 우리 형제들이 당번을 정해 고모네에 들러 신문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두 중앙일보의 애독자였다.

나는 서울에 독립해 살 때도 중앙일보를 구독했다. 당시 각 신문사의 판촉 경쟁이 치열했다.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준다느니, 밥통을 준다느니 했지만 나는 한눈팔지 않았다. 경품이 욕심나긴 했지만 왠지 중앙일보를 배신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미국에 오면서 중앙일보와의 인연도 끝난 줄 알았다. 가족, 친구와의 이별 못지않게 더는 중앙일보를 못 본다는 아쉬움도 컸다. 그런데 미국에도 중앙일보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마켓에서 중앙일보 가판대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바로 구독 신청을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끝나버린 줄 알았던 중앙일보의 인연이 미국에 와서도 이어졌던 것이다.

인연은 더 깊어졌다. 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기자로 11년 동안 일을한 것이다. 이후 미국직장에 취직하면서 중앙일보를 그만뒀지만 매주 칼럼을 썼다. '이계숙의 살며 느끼며'란 타이틀로 500회나 연재했다.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지 조지아주로 이사 간 한 지인이 그쪽 중앙일보에도 내 글이 실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뉴욕에서 팬레터가 오기도 했다. 너무너무 신기해 동네방네 자랑했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사가 문을 닫았을 때는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너무 큰 상실감에 한동안은 그냥 멍했었다. 고심 중에 LA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를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 당장 구독신청을 했다. 우편이기에 가끔 배달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중앙일보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어디냐 싶어 마냥 좋기만 하다.

미주중앙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함께 한 50년, 함께 할 50년'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정말로 훌륭하다. 그렇다. 나도 중앙일보와 50년 넘게 함께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작정이다.

디지털 세상 읽기

컴퓨터학과 교수의 걱정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UC버클리는 스탠퍼드와 함께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기 가장 좋은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탓에 각종 인턴 경험을 쌓기 쉬운데, 미국에서는 함께 일해 본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인력 확보에 혈안이 된 빅테크 기업들은 심지어 인턴들에게도 웬만한 기업의 정직원 수준의 보상을 주면서 구애에 열심이었다. 그러니 버클리에서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들로 넘쳐났고, 학교에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업을 늘려야 했다.

그런데 최근 그 학교 컴퓨터학과 제임스 오브라이언 교수가 자신의 링크드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버클리의 컴퓨터학과 졸업생들이 취업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글을 썼다. 과거에는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손쉽게 직장을 구했는데, 요즘은 학점이 가장 좋은 학생들도 졸업을 앞두고 아무런 오퍼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단다.

오브라이언 교수의 진짜 걱정은 이 추세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다. 그가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실험적인 프로젝트 대신 당장 수익이 나는 사업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AI에 올인하는 중이다. 결국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수혜자는 오픈AI와 같은 앞선 AI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나온 경력자들뿐이라는 것.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우수한 AI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취업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나온 AI 모델의 성능이 뛰어나 초급 프로그래머를 뽑지 않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굳이 고용해서 인건비를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이번 가을에 입학한 컴퓨터 전공 학생들이 4년 후에 졸업할 때는 완전히 다른 취업 시장을 만날 게 확실하다고 경고한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이미 직장을 잃은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텍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5. 터마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록 몰,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AVC, 새 핫워러탱크, 새 마루, 새 카펫 (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룸, 페리오, 워크아웃
• 폴스처치 콘도 $249,900
방 1, 화 1 , 전체 리모델링 ,495/66/50, 모자익, 던로링메트로
• 스프링필드 벽돌 타운 렌트 $3,200
방 3, 화 3.5,차고1,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지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켓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국군의날 B-1B가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76주년 기념식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를 거듭한 '북한 정권의 종말' 경고이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이 실렸기에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날 보여준 현무-V(5)와 B-1B 등 두 개의 전력 때문에 그렇다.

윤 대통령이 열병한 3축 체계 제대의 미사일 중 가장 긴 게 현무-V다. 3축 체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의 무기들이다.

20층 높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미사일

국방부가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한 현무-V는 18개 바퀴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에 실렸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한반도에서 TEL이 재빨리 움직이도록 9개의 바퀴 축이 각기 조향할 수 있다. 비껴가는 모습도 시연했다.

현무-V는 최대 사거리가 500㎞ 정도이며, 한반도 전역을 때릴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고위력 탄도미사일(현무-Ⅳ(4))'보다 더 크고 더 세다. 탄두부 무게만 8t이 넘는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생기는 운동에너지까지 더 하면 그 위력이 20층 높이 건물도 단숨에 무너뜨릴 정도다.

1일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미군 B-1B(오른쪽)가 공군 F-15K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 상공을 날고 있다. [뉴스1]

미군과 유엔군의 공습에 내내 시달린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지하시설 건설에 매진한 상황을 고려한 설계다. 현무-V는 지하 벙커를 부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공습으로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하려고 떨어뜨린 BLU-109 벙커버스터는 현무-V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벙커버스터 80발 넘게 떨어뜨렸는데, 현무-V는 1발이면 충분하다. 아니 현무-V 1발이 벙커버스터 80발보다 더 강하다.

지하 벙커에서 발견된 나스랄라의 시체는 상처도 없이 온전했다고 한다. 폭발의 충격파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아무리 땅속 깊숙이 숨더라도 현무-V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이유다.

북한은 김정은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만 제거하는 순간 모두 다 얼어붙을 수 있다. 한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현무-V로 김정은의 명줄을 잡고 있는 한 북한은 함부로 도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억제의 원리다.

미국 공군의 B-1B가 미 본토에서 날아온 뒤 한국 공군 F-15K 편대의 호위를 받았다. 한국에 '핵우산'을 씌워주겠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는 B-1B의 비행이었다. 한·미는 B-1B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에 합의했으며,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2년 연속 "북한 정권 종말" 경고
기념식서 초고위력 미사일 공개
미국 전략자산의 위력 과시 비행
경거망동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B-1B는 핵공격 능력은 없다. 그러나 유사시 미국 핵 자산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또 F-15K와 같은 한국의 재래식 자산은 미국 핵 자산의 운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력 과시일뿐더러 실전 훈련이라는 게 전경주 위원의 해석이다.

지난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린 현무-V(5)가 처음 공개됐다. [뉴스1]

더군다나 이날 창설돼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대기를 받은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 자산과의 연합 작전을 원활히 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의 임무도 갖고 있다.

기념식 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주한미군 제대 중 유엔군사령부 군기단은 '신 스틸러'다. 군기단은 유엔사의 18개 회원국 국기를 들고 걸었다. 유엔사는 평소 정전체제를 관리하다가,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한국에 회원국들의 병력과 무기, 물자를 보내는 사령부다. 북한을 억제하는, 또 다른 전략자산이 유엔사다.

사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의견이 제법 많았다. 그동안 국군의날 행사는 5년에 한 번 대규모로 열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행사를 다른 해도 실시할 수 있다.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행사 연습 중 장병 2명이 다쳤다.

기가 꺾여야만 협상장에 나오는 북한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방위산업 수출을 돕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런 목적들도 있지만,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기획했다"고 귀띔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맺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모자라,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핵무력법을 고쳐 핵 문턱을 더 낮출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쌓여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전 미리 눌러놓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은 말 폭탄을 쏟아내지만, 정작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면 움찔해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의 기를 꺾어야 할 때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은 궁지에 몰리면 협상장으로 나왔다. 이게 '힘에 의한 평화'다.

사족(蛇足). 기념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미 공군의 B-1B를 '죽음의 백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1B의 공식 별명은 랜서(Lancer·창기병)이고, 비공식적으론 영문 B와 원(One)을 합해 본(Bone·뼈)이라고 부른다. '백조'를 별명으로 가진 폭격기는 러시아의 Tu-160이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행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45.3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밝힌 2024년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지수다. 100점 만점에 50점이 채 안 된다. 한술 더 떠 불행한 아이들도 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7~18세 아동·청소년은 5만3000여명. 최근 5년 사이 75.8% 늘었다. 불안 장애를 겪은 아이들 역시 2만85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93.1% 증가했다. 해외와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2021)에서 한국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35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아이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137개국 중 57위였다.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뒤에서 네 번째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행복은 일상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핵심은 '느낀다'에 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느껴야 행복한 것이다. 느낌은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을 뜻한다. 만족이나 기쁨은 신체 기관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감정이다. 결국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연합뉴스]

궤변이 아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소냐 류보미르스키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에 따르면, 행복은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50%)와 자발·의식적 행동(40%) 그리고 환경(10%)이다. 긍정적이고 밝게 태어나는 게 가장 강력한 요인이지만, 행복을 느끼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복할 결심과 노력은 직업이나 소득 같은 환경의 영향보다 훨씬 강력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크다.

중앙일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 중앙플러스 시리즈 중 하나인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는 행복학자로 유명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만났다. 그는 "비교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소득이나 지위 같은 경제적 성과는 크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경제 규모 10위권의 선진국이 됐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겹쳐 보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특정 조건이 아니라 행복할 결심과 노력 아닐까.

정선언 페어런츠팀장

사 설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론이 나오는 이유 성찰해야

개혁신당이 어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제안했다. 야당의 정략적 공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최대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때문임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는 법으로라도 배우자의 행보를 보장할 건 보장하고, 제한할 건 제한하자는 취지일 게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진지하게 법 제정을 고민해 보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검찰은 어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제8조 4항)만 있고, 정작 처벌이나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이 같은 구멍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찌 된 이유에선지 정치권은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줄기차게 거론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사인' 신분이라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왜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하지만 그동안은 상식과 관행,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 배우자의 활동이나 임무, 권한이 일정 선을 넘지 않았다. 당연히 그걸 명문화한 규정도 없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 대상으로 배우자를 언급한 게 전부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도 그렇거니와 최근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개입 논란을 보면 일정 선을 넘어선 느낌이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배우자법 제정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배우자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 문제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더는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법 제3편 105조에서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모든 공적 활동이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레이건 전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벌인 마약퇴치 운동,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가 추진한 학교 급식 개선 운동도 이 조항에 따랐다. 프랑스도 2017년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정했다.

그동안은 상식과 관행, 내부 통제로 선 안 넘었지만
각종 스캔들과 국민 반감에 "법에 의한 통제" 제기

개혁신당은 향후 법 제정에서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고, 투입 예산의 투명성 확보, 법적 책임 강화를 꼼꼼히 담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권한, 권력을 마구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의 발로다.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로 더 이상 국민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그리 못할 이유도 없겠다.

주먹구구식 축구 행정 드러낸 축구협회 감사 결과

한 해 수백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전·현직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다.

문체부는 2일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7월 선임된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의 경우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면접 과정을 거쳐 감독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임명 때엔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이 마이클 뮐러 당시 강화위 위원장 한 사람에게 위임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그럴 권한이 없는데도 클린스만을 포함한 1, 2순위 후보자를 온라인 면접했다. 관련 자료조차 남기지 않는 바람에 면접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 이사회 역시 감독 선임 절차를 생략하거나 가부만을 표시하는 서면 결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런 문제점들에도 문책 등의 개별적인 처분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장 이달 10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 원정경기와 15일 이라크와의 홈경기를 홍명보 감독 체제로 치르게 됐다.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축구팬들의 비난이 거세지만 당장 감독을 교체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의 수난에 이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각국 축구협회 운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정치권의 개입을 정관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달 말 문체부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진 사퇴 등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축구계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단법인인 축구협회 운영에 한 점 오점이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대표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감독 선임 과정은 비공개로 하는 게 축구계의 관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럽 프로무대에서 손흥민·이강인 선수 등의 활약으로 축구팬들의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상태다. 선수들은 세계적인데 대표팀 성적은 초라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축구협회는 주먹구구에 가까운 행정 관행을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장기적 경기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자리 기여 1위, 그 씁쓸함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한국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진원지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일자리들을 가져오겠다(take)"고 말했다(9월 24일 조지아주 서배너 유세). 그는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탈출(mass exodus)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말을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아무 말 대잔치'로 여겨선 안 된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하며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내에선 철통 같은 동맹 사이에 설마 FTA를 고치자고 하겠느냐는 기류가 강했다. 안일한 시각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한국은 재협상에 임해야 했다. 지금도 트럼프는 그때 철폐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연장해 미국 소형트럭 산업을 지켰다고 자랑한다.

그렇다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 다른 상황이 연출될까. 해리스는 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은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안이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고,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안겨주며 외국 기업을 유치했다. 한국 기업이 일등공신이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215억 달러(약 28조원) 투자를 약정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파이낸셜타임스 분석).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현지 공장을 짓고 있다. 이건 당연히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지난해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미국에 생겨난 일자리 28만7000여 개 중 한국 기업의 기여가 2만여 개(14%)로 1위다(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 한국 기업의 1인당 연간 급여는 평균 10만4000달러. 대부분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일자리다(무역협회 분석, 외국계 기업 평균은 8만7000달러).

결국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우리 기업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은 '정해진 미래'로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장을 잃지 않고 공급망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까지 따라오니 밑지는 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 수출'은 국내 고용 시장에 달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용 시장엔 이미 이상 징후가 뚜렷하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만3000명 줄었다. 대신 단기 근로자, '그냥 쉬는' 이가 치솟고 있다.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1만여 명(지난 8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치다. 장기 백수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이다. 이런 비정상의 원인은 하나로 귀결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제조업 우량 기업 일자리가 그 핵심이다.

한국, 작년 미국의 최대 투자국
차기 미 정부 투자압박 거셀 듯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더 필요

일자리 '수입'에 팔을 걷어붙인 미국에서 초강대국의 '완력'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파격적인 기업 정책이다.

트럼프는 낮은 세금, 규제 철폐를 당근으로 내걸었다. 재임 시절 21%로 낮춘 법인세를 15%로 더 내리고, 새로운 규제 1개를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외국 주요 기업에 대미 투자를 설득할 '제조업 담당 대사'를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채찍은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다. 경제적 실질 효과 여부를 떠나 그가 얼마나 공장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진심인지를 보여준다. 해리스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미 반도체 기업 투자를 더 촉진하기 위한 '제2의 반도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문제는 우리다. 기업을 어떻게 붙들어 둘 것인가. 정부는, 여야는 도대체 어떤 복안이 있나. 이쯤 되면 여·야·정이 '일자리 수호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I 27가지 야채 I 68가지 허브 및 해초 I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혈압이 비정상이신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과체중이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410)750·9656 • 모드니에(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301)926·6307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tong tong bay Seafood and Fish

OCT. 3rd - OCT. 10th, 2024

Dried Squid
맥반석/ 매운맛/ 버터구이 오징어포

HOT PRICE ★★★ SPECIAL OFFER

~~EACH $4.99~~

2 FOR $6.99

ROASTED/SPICY/ GRILLED - 1.5 OZ

PRODUCT OF KOREA

Dried Anchovy
"프리미엄" 다시/볶음/ 지리멸치

DASHI - 2 LB/BOX
~~$26.99~~
$19.99

BOKKEUM/JIRI - 2 LB/BOX
~~$34.99/$39.99~~
$2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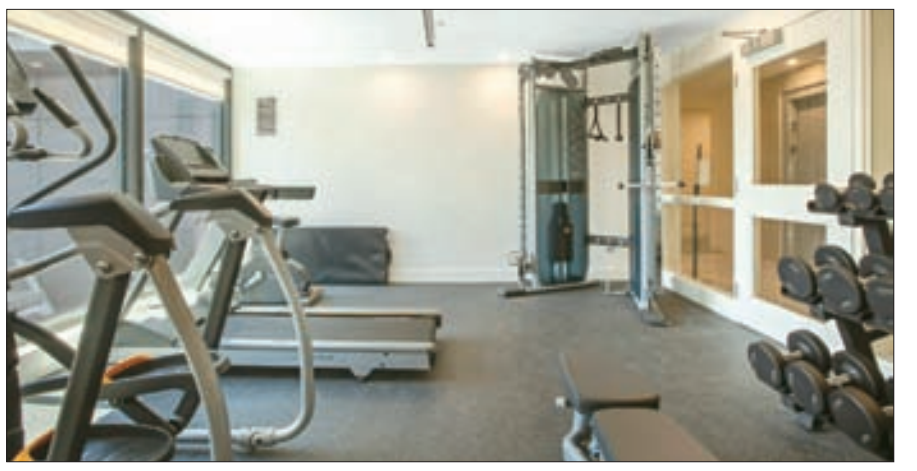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읍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집값 싼 도시서 내집 장만 할래요"

Z세대, 집 구매 어떻게 하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Z세대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1997년 이후 태어난 Z세대가 사회인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생활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Z세대는 주택 쇼핑과 구매에서도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Z세대가 직면한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은 녹록지 만은 않다. 급등한 주택 가격과 높은 모기지 금리는 이들 세대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Z세대 주택 구매 현황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들만의 구매 양상에 대해 알아봤다.



Z세대 바이어들은 피트니스센터, 공용 라운지 등 공용 시설이 있는 도심 근교의 중소형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splash.com 제공]

온라인, 앱 등서 검색하고 구매까지 진행
친환경, 스마트홈 시스템, 공유주택 선호

▶구매 현황

AZ빅미디어가 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Z세대 상당수는 내집 장만에 부모 세대 못지않게 진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4%가 15만~25만달러 사이의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주택 중간값이 36만달러가 넘는 것을 고려했을 때 Z세대 예비 바이어들은 주택 구매를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에서 내집 장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리얼터닷컴(Realtor.com)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 오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 피닉스(Phoenix) 등 비교적 집값이 싼 대도시에 내집 장만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는 Z세대 바이어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인데 지난 2020~2022년 사이 이곳 모기지 융자 신청자중 8.5%가 Z세대였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1.5세로 집계됐다. 또 평균 다운페이먼트 액수는 3만3000달러, 평균 모기지 대출금은 24만4365달러였다.

▶구매 트렌드

Z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클레버 리얼이스테이트(Clever Real Estate)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주택 구매 시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리스팅 검색과 구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의 약 67%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39%보다 높은 수치다. 그래서 Z세대 예비 바이어들에겐 질로(Zillow), 레드핀(Redfin)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리스팅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까지 진행하는 것이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들은 부동산 플랫폼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짧은 시간 내 매물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또 주택 정보 및 가격 역시 투명하게 제공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한다.

또 Z세대는 주택 구매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버추얼 투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여부도 업체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Z세대는 주택 구매 시 장기적 재정 계획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맞춘 구매 전략을 선호해 낮은 융자 상환금보다는 낮은 다운페이먼트에 관심이 컸다. Z세대 응답자 57%가 가능한 다운페이먼트 액수로 집값의 3~5% 정도라 응답했다. 또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포인트 구매(buying points) 옵션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주택은

Z세대는 도심 인근 소형 콘도, 타운하우스 등을 선호하는데 이는 직장과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선호도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Z세대가 자차 소유보다는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또 이들은 친환경 및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도 커 친환경 및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진 주택을 선호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센터, 피트니스 센터, 공용 라운지 등 공용 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 단지도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전망

이들이 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은 비싼 집값과 고금리다. 그래서 이들은 저렴한 도심 외곽 지역이나 신흥 주거 지역을 비롯해 공유 주택과 같은 새로운 주거 모델에도 관심이 크다. 특히 공유 경제에 익숙한 Z세대는 전통적인 주택 소유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 4면 'Z세대 집구매'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이거 20년만 묻어둬봐 … 엄마는 용돈 대신 ETF 사줬다

20년 전에 그 주식을 샀더라면…. 이런 마음으로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손쉽게 자녀 계좌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만약 20년 전인 2004년 8월 말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떨까. 올해 8월 말 주가는 8.1배가 됐고(수정주가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11%에 달한다. 예금 금리는 낮은데 주식 시장은 급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부모 세대는 적극적으로 자녀 계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자녀의 투자에 무관심했다면 모아 둔 아이 용돈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미성년자 '개미'는 더는 드물지 않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세 미만 미취학 아동 주식 투자자는 18만471명으로 전체 아동(244만6568명)의 7.4%를 차지한다. 초·중·고교생인 8~19세 투자자도 58만1257명으로 해당 연령 인구(553만7784명)의 10.5%나 된다.

자녀를 위해 투자할 때는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불린 뒤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된 계좌에서 시작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년 뒤에 또 2000만원을 자녀 계좌에 넣어주면 20세 전까지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증여한 뒤에 투자해서 불린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본인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런 무상 증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대부분은 부모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자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증권사의 자녀 계좌는 크게 주식거래종합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두 종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만 가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개별 주식을 사고 싶다면 선택지는 주식거래종합계좌뿐이다. 이 계좌는 국내외 개별 주식과 ETF·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별 주식 매매는 불가능하고, 국내에 상장된 ETF와 펀드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면 계좌에 입금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의 미성년자 계좌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종목 톱10을 살펴봤다.

한국내주식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삼성전자'가 제일 좋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미성년자 고객 수는 늘었지만, 삼성전자 보유 고객은 4만2133명에서 3만793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홍성배 NH투자증권 성동WM센터 PB팀장은 "삼성전자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지친 투자자들이 종목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상위 종목 쏠림 현상이 약해진 것을 볼 때 다양한 종목으로 투자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각 사(8월 말 기준)
그래픽=김호준

특히 자녀를 위한 투자에서도 미국 주식 선호가 두드러진다. 한국내주식에 비해 미국 주식의 보유 고객, 평가 잔고가 늘고 있다. 심지어 한국내주식 상위권에도 S&P500, 나스닥100 같은 미국 증시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올라있다. 이들 ETF까지 포함하면 이미 미성년자의 투심은 미국 증시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오정택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반포WM 이사는 미성년자 미국 주식 인기의 이유를 '보유 가치'와 '증여'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엔비디아, 애플 같은 종목이 장기 보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모들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한 미국 주식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자녀 계좌에 투자할 때엔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주고 운용할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넣어 적립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자녀가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기본이다. 공제 범위인 2000만원 이내라고 해도 신고를 해서 증여 사실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승준 삼성증권 TAX센터 세무사는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 시기를 가입 당시로 보지 않고, 불어난 자금을 자녀가 인출하는 시점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2000만원의 목돈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줄 경우에는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번거롭다면 '유기정기금' 증여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유기정기금은 일정 기간 매회 일정 금액을 증여하겠다는 사전 계약이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유기정기금 증여를 이용하면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 미래에 자녀에게 줄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할인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유기정기금 할인율은 3%다. 예를 들어 매달 18만9693원을 증여하면 10년간 누적 원금은 2276만3160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면 1999만9960원으로 2000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다만 이승준 세무사는 "사전 증여 계약 신고를 한 이후엔 실제 증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간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차익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자녀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를 챙기려면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자주 매매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

특히 미국 빅테크 집중 투자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빅테크 주가가 고점 대비 떨어진 것에 대해 오정택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AI(인공지능)는 아직 꺾이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해도 투자는 유효하다"고 했다. 특히 자녀에게 사줄 만한 종목으로 애플을 꼽았다. 오 이사는 "애플이 AI에서 뒤처졌다는 우려가 있지만, 결국 AI의 발달은 디바이스(기기)로 이어질 것이다. 애플은 강남 부동산처럼 떨어질 땐 다른 지역보다 덜 떨어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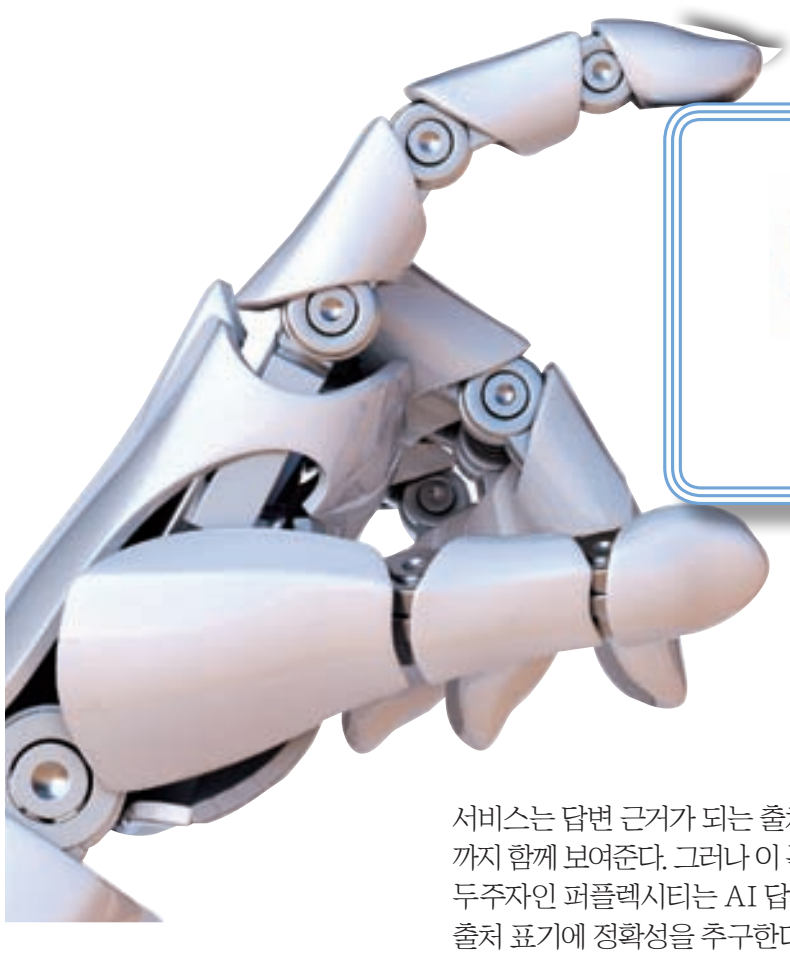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 대상으로 금융주를 권했다. 대표적인 종목으론 신한지주를 꼽았다. 그는 "저평가 상태로 주가가 안정적이고 주주환원율도 상승 추세다. 2027년까지 순이익 50%를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활용하기로 해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다. 삼성증권 디지털HNW(고액자산가)팀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외 종목 2~3개와 코스피200, S&P500, 나스닥100 국내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분산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남윤서 기자

‘여길 뒤져봐’ 답없는 키워드 검색 … ‘AI 답변엔진’ 떴다

I ‘Googled’ it=검색해 봤어. 구글과 검색이 전 세계에서 동의어로 쓰인 지 어언 20년. 국내로 치면 네이버의 초록창이 검색의 대명사로 통한다. 구글과 네이버, 두 회사는 검색창에 핵심 단어를 입력하는 소위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았고, 거대 공룡으로 성장했다. 생성 AI의 약진은 검색 시장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수많은 링크를 일일이 클릭하며 필요한 답변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진 게 대표적이다. ‘퍼플렉시티’와 같은 스타트업이 검색 시장에 수퍼스타로 데뷔했고, 챗GPT로 생성 AI 시대를 연 오픈 AI도 재빠르게 AI 검색 서비스 ‘서치GPT’를 내놨다.

권유진·어환희 기자



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

네이버가 공개한 LLM 하이퍼클로바X 기반 서비스 ‘큐’

구글이 일부 국가에서 출시한 AI 검색 결과 표시 서비스 ‘오버뷰’

진주알 찾기까지 단 몇 초, ‘답변 엔진’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얻고 싶은 답변을 진흙 속 ‘진주알’이라고 가정해 보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진주알을 찾기 위해 일일이 구석구석 파헤쳤다. 그런데 AI는 단 몇 초 만에 사용자에게 진주알을 제공한다. 구글·네이버 등 기존 검색 엔진은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웹페이지를 검색 결과물로 내놓는다. 웹페이지 인용 횟수를 기반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페이지 랭크(page rank)’ 방식이다. 사용자는 일일이 링크를 눌러 웹페이지를 검토한다.

AI 검색 시대엔 사용자가 직접 진흙을 뒤져 진주알을 찾는 행위, 즉 중간 단계가 사라진다. 기계적인 키워드 포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질문 의도 등을 파악해 원하는 답을 내놓기 때문이다. AI 검색 대표 주자는 2022년 8월 설립된 퍼플렉시티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여러 웹페이지를 순식간에 검토하고 이를 요약해 답변을 보여준다. 퍼플렉시티는 이런 서비스를 기존 검색 엔진과 차별화한 ‘답변 엔진’이라고 명명했다.

챗GPT·클로드 등 이제는 익숙해진 챗봇과는 비슷한 듯 다르다.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건 동일하다. 하지만 ‘AI 검색’ 서비스는 답변 근거가 되는 출처 링크까지 함께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야 선두주자인 퍼플렉시티는 AI 답변만큼 출처 표기에 정확성을 추구한다. 구글도 새로 출시한 AI 검색 기능인 ‘AI 오버뷰’에서 주석 형태로 출처를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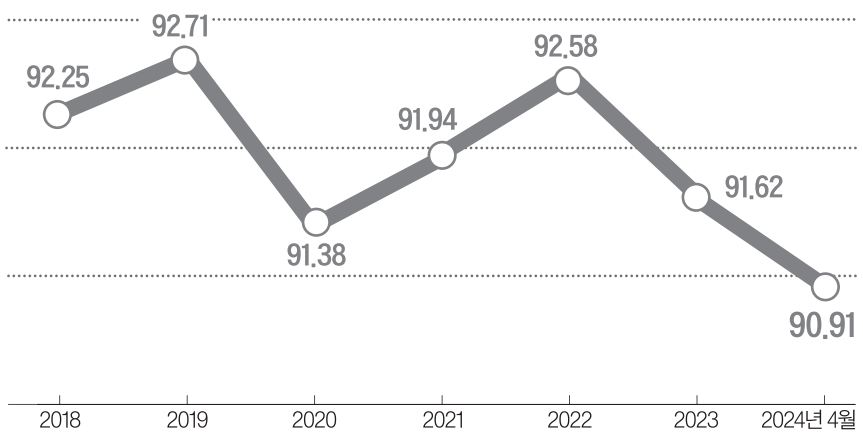
검색 생태계 지각변동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90.91%(스탯카운터)다. 여전히 점유율 90%는 넘겼지만, 2018년 8월(90.91%) 이후 약 5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점유율보다 더 큰 위기는 영향력 측면이다. 구글링‘은’ 해도 구글링‘만’ 하는 사용자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연구센터장은 “AI로부터 검색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보통 인간의 검색 습관은 변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병행 사용의 추세가 지속하다가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검색에 구글만 쓰는 사용자는 40%도 안 된다는 최근 조사도 있었다. AI가 검색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향력 감소는 기존 검색 시장 수익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연관 검색어,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검색 광고 등 직접적인 수익 모델 외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에서 파생되는 트래픽 유입 형태 마케팅 효과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

AI 답변 엔진을 만드는 신생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고안하고 있다. 유료 구독 모델은 이들의 중요한 수익 모델 중 하나다. 퍼플렉시티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는 “단순 답변 제공을 넘어 사용자 결정을 돕는 ‘행동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 되든 AI 검색 시장을 잡는 곳이 향후 AI 패권을 잡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터넷 시대 포털처럼 사용자들은 하나의 AI 검색 서비스에 모든 걸 연결해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AI 검색 스타트업 뤼튼 관계자는 “답변 엔진 업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생성 AI 플랫폼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단위: %, 매년 12월 기준, 자료 스탯카운터



검색 거인들의 이유 있는 변신

구글·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 검색은 알파이자 오메가다. 네이버는 로컬·커머스 서비스로 쌓은 데이터가 많다는 게 강점이다. 검색증강생성(RAG,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 가져와 결과를 생성하는 것) 기반의 AI 검색도 결국 기존 검색 기능의 성능에 좌우된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새로운 정보를 끌고 올 풀이 많을수록 AI 검색의 퀄리티도 올라간다.

기존 서비스와의 시너지는 검색에서 끝나지 않는다. 쇼핑·지도 등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가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 ‘큐’(CUE:)와 연계돼 있다. 맛집을 검색할 뿐 아니라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네이버 예약), 레시피를 검색해 주문까지 한 번에(네이버 장보기) 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의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

구글은 지난 5월 생성 AI 제미나이가 요약한 내용을 우선 노출해주는 ‘AI 오버뷰’를 미국에서 출시했다. 대화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도 검색이 가능하다. AI가 생성한 답변의 오른쪽 상단에는 관련 웹사이트가 표시된다. 구글 관계자는 “미국에서 출시한 이후 AI 오버뷰를 사용하는 사람이 검색을 더 많이 하고 결과에 더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멕시코 등 6개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한국에선 아직 쓸 수 없다. 오버뷰는 출시 초기 사용자 질문에 틀린 답변이나 문맥에서 벗어난 응답을 하는 등 할루시네이션(AI의 그럴싸한 거짓말)을 보였다. 구글은 이를 인정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은 답변 출처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90% 벽 넘을 수 있을까

검색은 데이터·자본·사용자를 모두 가진 빅테크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생성AI가 등장하면서 검색 시장을 재정의하려는 스타트업에 사람도, 자본도 모이고 있다. 글로벌에서는 퍼플렉시티가, 국내에서도 몇몇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빅테크의 무기는 자체 개발한 성능 좋은 LLM을 검색에 활용한다는 것.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LLM을 처음부터 만들 돈도, 기술도 부족하다. 대신 이들은 외부 LLM을 AI 검색에 최적화해 사용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우리는 자체적인 검색 엔진, 추천 엔진을 생성 AI 시대에 맞게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AI 검색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검색에 특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AI 검색이 정답 찾기뿐 아니라 일상 곳곳에 침투할 수 있다고 본다. 완성형 문장으로 넣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드를 넘기는 방식, 관심 있는 키워드를 눌러보는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게 했다. 단순히 답을 찾는 서비스뿐 아니라 사용자들과 친구·가족과 같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표다.

AI 검색 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은 수익화다. 시범적으로 광고를 도입하려는 곳도 있지만, 현재 일부 유료 구독이 수익 모델의 전부다. 그러나 미국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유닷컴은 기업용 솔루션으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검색은 현재 대체재보다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 소비자의 검색 습관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AI 검색이 현재 검색 방식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2024 여름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주택★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업체★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주소	기간	세입자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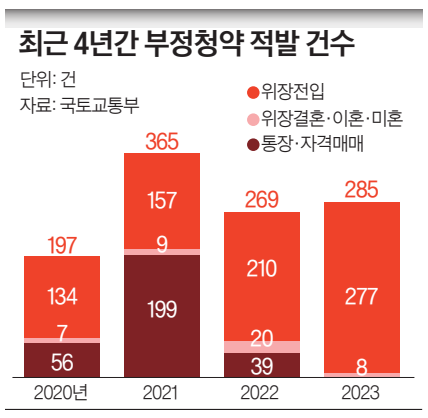
‘강남 10억로또’ 평균 당첨가점, 5인가구 만점보다 높았다 〈74점〉

강남 청담르엘 당첨자 보니 75.6점
로또 청약 늘자 가점 인플레 심화
“강남은 대가족 선발대회냐” 푸념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의 1순위 평균 당첨 가점이 75.6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5인 가구가 15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해, 이 기간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만점(74점)보다 높다. 모든 주택형에서 최소 당첨 가점은 74점이었다. 5인 가구 만점자도 청약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청약’이 최근 잇따라 등장하면서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청담르엘의 3.3㎡(평)당 분양가는 7209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2억~25억원 수준으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 분양 전부터 ‘로또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 지난달 20일 1순위 청약에선 85가구 모집에 5만6717명이 접수해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강남권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강남구·2월 분양)·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7월)·래미안레벤투스(강남구·8월)·디에이치방배(서초구·8월) 등 4개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73.1점으로 집계됐다. 최저 가점 평균은 71.9점으로 15년 무주택 4인 가구 만점자(69점)조차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7월 말 기준) 655명 중 5인 이상의 대가족이어야 나올 수 있는 ‘70점 이상’ 가점은 220명(3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 당첨자를 보면 70점 이상 가점 비중이 83%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1~2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폭증한다던데, 5인 이상 대가족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강남 청약은 대가족 선발대회냐”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울러 “가족들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7인 가구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청약 만점인 84점 당첨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7인 가구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에 달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80건에 육박했다.

이에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부모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편법 동원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이 중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복기왕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통통신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으로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이는 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청약 제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무주택 기간 가점 비중을 높이는 등 현실에 맞는 청약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 1면 ‘Z세대 집구매’에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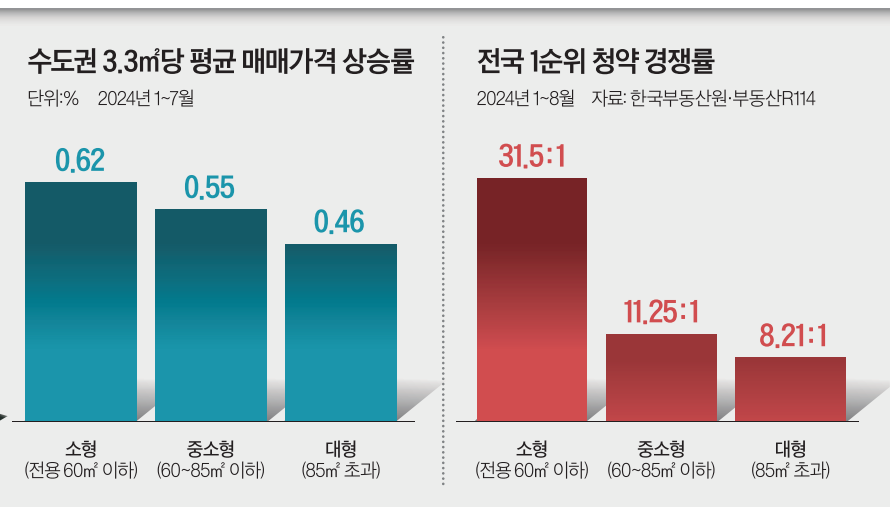
부동산 전문가들은 Z세대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집 장만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Z세대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넥스젠 인사이트 크리스틴 메세를리 대표는 “Z세대 바이어들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SNS를 적극 활용하는 Z세대 에이전트들이 주택 거래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부동산 업계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낮지만 집값 상승률 더 높아”… 더 커진 소형 인기

올해 청약 경쟁률 보니

서울선 국민평형도 분양가 15억원
진입장벽 낮은 60㎡ 이하 청약 몰려
1·2인 가구 증가도 소형 관심 늘려
소형 집값 상승률, 중소형·대형 추월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오름세를 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수가격 부담이 덜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변화도 소형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을 꾸준히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31.5대 1, 중소형(60~85㎡ 이하) 아파트가 11.25대 1, 대형(85㎡ 초과) 아파트가 8.21대 1로, 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59㎡가 주력인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고 있는 전용 84㎡를 추월한 건 2022년부터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중소형이나 대형 아파트 경쟁률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소형 아파트가 6.94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로 중소형(6.39대 1)을 추월한 후 지난해에는 소형이 12.5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8.67대 1)과 격차를 벌렸고, 올해는 그 격차가 3배 가까이 더 벌어졌다.

시장에선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16일 기준)은 지난 3월 말부터 6개월 넘게 오르고 있고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은 2021년 전 고점 매매 가격을 넘어선 단지가 적지 않다.

분양가격 상승 폭은 더 가파르다. 7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평)당 분양가격은 4401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로 산출하면 전용 59㎡(25평) 평균 분양가가 11억원대, 84㎡(34평)는 14억9600만원대에 이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격조차 84㎡가 서울에선 14억~15억원대에 이르다 보니 자금 마련부터 쉽지 않다”며 “우선 진입장벽이 낮은 59㎡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월 말 수도권 1~2인 가구 수(총 759만5105)가 전체의 63.89%에 달하는 것도 소형 아파트 수요를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올해 1월 대비 7월 0.62%에 달해 중소형 0.55%와 대형 0.46%를 앞질렀다.

백민정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H MART

OCT. 4th - OCT. 17th, 2024

FEEL AT HOME WITH THE TASTE OF KOREA

New Season Fall Event!
Experience K-Food Only at H Mart.

Available at : Centreville, Fairfax & Ellicott City Stores

RAW NATURE Cooked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현미밥
7.4 OZ X 12 BOWLS/BOX
WHITE RICE $9.99 BROWN RICE $11.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8.99 28.21 OZ

HAIO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생강차
YUZA/GINGER - 2.2 LB
$5.99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PKG
$10.99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

HAIO Korean Beef BBQ Sauce
해오름 고기양념
ALL VARIETIES/1.85 LB
$3.99

HAIO Red Pepper Paste [Go-Chu-Jang]
해오름 태양초 쌀고추장
MILD HOT/2.2 LB
$4.99

SANGRIME Tea
산그리메 옥수수 수염차
CORN SILK/0.79 OZ
$3.49

HAIO Banana Flavored Milk Drink
해오름 바나나 우유
6.42 FL OZ X 6 EA/PKG
$3.9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 FOOD KOREAN FOOD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융자 칼럼

새 컨포밍 융자한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콘포밍 융자한도가 인상되었다. 현재의 $766,550에서 $802,650으로 다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726,200에서 $766,550으로 상향된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컨포밍 융자 한도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결국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주택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상승하는 집값에 따라 융자 액수 또한 그에 상응해서 커지다보니 적절하게 뒤따른 시장조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카운티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장가격들을 반영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Conforming High Balance 융자한도 또한 추가로 인상될걸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라우든·프린스윌리엄·몽고메리·프린스조지스 카운티 등의 Conforming High Balance 한도금액이 현재 1,149,825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인상된다면 까다롭기 그지없다는 점보융자를 피할길이 더 크게 열린다는 점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융자의 유연성을 더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사실 이번의 컨포밍 융자 한도 인상은 그 시사 하는바가 남다르다고 본다. 팬데믹 이후 꾸준히 상승해온 주택가격으로 인해 점보융자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많아지고 사실상 그 심사과정이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점보융자에 해당되는 대상 주택들이 늘어나게 된 것을 이번 한도 인상 조치로 인해 그만큼 높은 가격대의 주택 거래가 보다 더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걸로 보인다. 때맞춰 이자율 또한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만큼 이번 콘포밍 융자한도 인상 소식은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컨포밍 융자의 혜택을 얻게 되는 주택 가격대가 상향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다가온다.

어느 순간 웬만한 집이 백만불을 넘어가더라는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에 맞춰 이젠 백만불 주택도 20% 다운이면 일반 콘포밍 융자한도안에 들어오게 되니 그만큼 시장에 유연성이 더해지는 셈이 되었다.

또한, 이번 컨포밍 융자한도의 인상 소식은 지난해에 비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때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불식하고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는것을 뒷바침하고 있는 반증이기도하다.

이는 결국 최근의 이자율 하락추세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군다나 최근 연준의 금리인하 조치와 향후 이어지는 금리인하의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이자율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표된 이번 컨포밍 융자한도 인상조치는 올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 넣는 희소식으로 기대된다.

▷문의: 703-868-7147 배준원

부동산 가이드

대선과 주택시장

제이든 모
EXP부동산

주택 판매량·가격·모기지 금리에 영향 있지만 일시적이거나 미미, 주택 거래 미루지 않아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이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시장에서 올해 집을 사고팔려는 독자들은 이번 선거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과연 지금이 주택 거래에 적절한 시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행히도 대통령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그 영향도 크지 않다는 역사적 데이터가 존재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비추어 보면, 선거 때문에 주택 거래 계획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 선거가 주택 판매, 가격,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판매 동향을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주택 판매가 다소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부 소비자들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구매 결정을 잠시 미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둔화는 매우 일시적이며, 선거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전국부동산협회(NAR)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차례의 대통령 선거 중 9차례는 선거 이후 다음 해에 주택 판매가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이어진 패턴이다.

둘째, 주택 가격의 변화다. 주택 시장 분석가 라이언 룬드퀴스트는 "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이미 진행 중인 가격 추세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주택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NAR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차례의 대통령 선거 중 7차례의 경우, 다음 해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예외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였지만, 현재 시장은 그때와 비교해 훨씬 안정적이다.

셋째, 주택 담보 대출 금리다. 선거 기간 동안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11차례의 선거 중 8차례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금리가 낮아졌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다수의 전문가가 2024년 말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통계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선거가 치러지는 해의 주택 시장은 다른 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선거 때문에 주택 구매나 판매 계획을 미룰 필요는 없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주택 시장은 매우 강력하고 견고한 비유동 자산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큰 사건이나 내전, 천재지변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동안 시장은 체질 개선을 이루었고,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미국 부동산은 여전히 헤지(Hedge) 측면에서 강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거주용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오픈 하우스

에릭 민
드림부동산 부사장

바이어 다수에 집 보여주고 오퍼 끌어내 브로커 위한 오픈 하우스는 별도로 열려

드디어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많은 전문가는 경기 흐름에 따라 올해 안에 추가로 0.25%에서 0.5% 정도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올 상반기와 비교해 1%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재융자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 면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조용한 상황이다.

요즘 주말에 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오픈 하우스 사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픈 하우스란 무엇일까? 평상시에는 에이전트와 함께해야만 집을 볼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는 에이전트 없이도 자유롭게 집을 볼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집을 공개하는 것이 오픈 하우스다.

오픈 하우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주말에 하는 일반 오픈 하우스고, 두 번째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로커스 오픈 하우스다. 일반 오픈 하우스는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주말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브로커들의 오픈 하우스는 주중에 하루를 정해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인타운의 경우 화요일, 패서디나는 목요일에 열린다.

일반적으로는 브로커스 오픈 하우스를 먼저 하는데, 이는 에이전트들에게 먼저 집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 반응을 살펴본 후, 이후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다. 물론 일반인들도 브로커스 오픈 하우스에 방문해 구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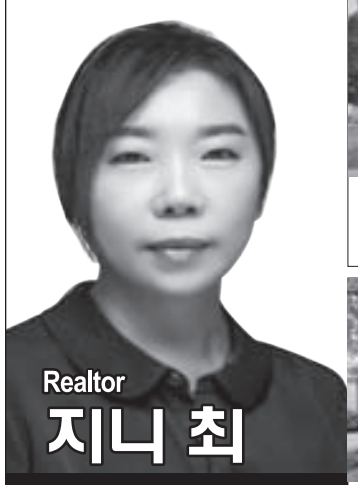
리스팅 브로커들은 오픈 하우스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집 주변에 오픈 하우스 사인을 설치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며 집 안팎을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단장한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오픈 하우스 시에는 이러한 내·외관 정리 외에도 집 안에 빵 굽는 향이나 향초로 좋은 향기를 풍기게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좋은 반응을 끌어낸다.

그렇다면 에이전트와 셀러의 입장에서 오픈 하우스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오픈 하우스의 가장 큰 목적은 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최고가의 좋은 오퍼를 단시간 내에 받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에이전트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오픈 하우스가 그 자체로 광고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내가 이 지역에 리스팅을 받았으니, 앞으로 집을 팔 때도 경험이 많은 나에게 리스팅을 맡겨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또한, 에이전트가 없는 고객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손님 확보 차원에서도 오픈 하우스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셀러 입장에서 오픈 하우스는 어떤 의미일까?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집을 내놓은 후 여러 시간대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 상황에서 마음 편히 집에 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픈 하우스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집을 보여주면 나머지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또한, 셀러는 오픈 하우스를 통해 "에이전트가 내 집을 팔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된다.

REALTY 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 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 주세요.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고 1

급 매

$56만
알링톤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매트로와 인접
타운하우스식 콘도

$69만
우드브리지
니본 랜딩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프랑스 유학파 김고은, 남사친과 '기묘한 동거'

"대본을 받고 2년 반을 기다렸어요. 이야기가 솔직담백한 게 좋았죠."

천만영화 '파묘'의 배우 김고은(33)이 무당 옷을 벗고 로맨스로 돌아왔다. 1일 개봉한 '대도시의 사랑법'(감독 이언희)은 자유분방한 프랑스 유학파 재희(김고은)와 동성애자 흥수(노상현)의 대학 시절부터 13년간 이어진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재희의 집에 스토커가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룸메이트가 된 둘은 재희의 임신중절 수술, 흥수의 작가 등단 등 여러 사건을 함께 겪어낸다.

개봉 전날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그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13년간 서사 안에 성장통이 잘 담긴 귀한 작품"이라 소개했다.

영화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더블린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박상영 작가의 동명 소설집(2019) 속 단편 '재희'를 '미씽:사라진 여자'의 이언희 감독이 재해석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압축된 일상의 단면을 충실하게 복원해"(박상영)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됐다. 김고은은 처음 가본 토론토 영화제에서 "1200여명 관객이 콘서트 보듯 매 장면에 호응하고 박수치며 영화를 즐기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김고은은 대학 01학번인 영화 속 재희와 실제 동갑내기다. 영화 '파묘' '영웅'(2022), 드라마 '작은아씨들'(tvN, 2022) 등 설정이 강했던 최근작과 달리 '대도시의 사랑법'에선 본연의 매력을 자연스레 발휘했다.

영화는 남녀 주인공의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다. 부모의 무관심과 유년기 왕따의 상처 탓에 연애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재희, 커밍아웃을 주저하는 동성애자 흥수 등 각자의 다채로운 사랑법을 그린 점은 상업 영화로선 낯선 지점이다.

김고은은 "소재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 '각자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하는 영화"라며 "우리네 사람 사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고은의 20대도 재희처럼 성장통을 겪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직장 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0년간 살다 귀국했다. 영화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초등학교 때 중국 거장 첸 카이거 감독의 '투게더'(2003)를 20번이나 볼 만큼 감명받으면서다.

"중국에서 살다 와서 완전히 '한국적 마인드'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그는 "왜 다르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 별나다는 인상을 주는 걸까, 20대 때는 그게 억울했고 시행착오와 충돌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재희가 자기 것은 다 내려놓고 사회와 타협하려는 시행착오를 겪는데 내 20대도 그랬던 것 같다"며 "나의 다름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생각하는 재희의 가장 큰 성장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1순위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재희(김고은)와 흥수(노상현)의 대학 시절부터 13년간 이어진 우정과 사랑 이야기다.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대 때 주변의 편견에 시달린 기억이 상처로 남았다는 김고은은 이준익 감독('변산'), 윤제균 감독('영웅') 등 주변의 '좋은 어른들'로부터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영화 속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재희와 자신은 얼마나 닮았을까. 김고은은 "실제론 겁이 많아 재희처럼 놀아보진 못했다. 소개팅·미팅도 안 해봤다"고 했다.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의 편견 어린 발언을 꼬집는 '직장인 말투'는 직장인 친구들을 관찰하며 배운 것이다. 처음 대본을 읽을 때 재희의 친한 언니나 친구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그는 "관객들이 재희를 오해하지 않게 잘 표현하고 싶다, 재희의 이면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뭉클했던 장면은 재희의 결혼식 때 흥수와 재희가 같이 춤추며 들려주는 내레이션을 꼽았다. "고1 때 만나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 2명이 떠올랐다"면서다. 애플TV+ 드라마 '파친코'(2022) 이후 이번 작품으로 스크린 데뷔한 노상현(34)과는 촬영 전부터 자주 만나 고민도 나누면서 "연기와 일상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대도시의 사랑법'은 각자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영화"라며 "음악감독을 맡은 뮤지션 프라이머리의 음악도 너무 좋다"고 말했다. "보고 나면 기분 좋게 극장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다.

나원정 기자

콩파니 전술과 찰떡… 괴물 김민재 깨어났다

〈뮌헨 감독〉

레버쿠젠전 철벽 수비로 MVP
비겼지만 키커 '베스트 11' 뽑혀

"공격수와 일대일 상황은 물론 공중볼 경합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를 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김민재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독일 키커가 선정한 2024~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뮌헨은 지난달 29일 벌어진 리그 5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레버쿠젠과 1-1로 비겼는데 이례적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 베스트11 선수를 배출한 것이다. 그만큼 김민재의 경기력이 돋보였다는 의미다. 김민재가 키커의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건 올 시즌 처음이다.

레버쿠젠을 상대로 김민재의 패스 성공률은 92%에 달했다. 지상 볼 경합은 4회 중 3회를, 공중볼 경합은 8회 중 4회를 각각 성공시켰다. 한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상대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에 의한 실점이라 수비진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김민재는 파트너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짠물 수비를 펼치며 레버쿠젠에 단 3개의 슈팅만 허용했다. 김민재는 뮌헨-레버쿠젠전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키커는 "레버쿠젠이 시도한 수차례 공격이 김민재에 막혔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고 칭찬했다.

김민재가 올 시즌 맹활약하면서 그를 향한 비난도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김민재는 2022~23시즌을 나폴리(이탈리아)에서 뛰며 유럽 정상급 수비수로 올라섰다. 그는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패스 능력을 선보이며 팀을 33년 만의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상도 받았다.

하지만 뮌헨 유니폼을 입은 2023~24시즌부터 고전했다. 잦은 실수를 저지르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감독의 전술이 그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김민재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벤치로 밀렸다. 당시 뮌헨을 이끌었던 토마스 투헬 전 감독은 빌드업 중심의 플레이를 선호했다. 스피드와 힘이 좋은 김민재보다는 빠르지 않아도 패스가 좋은 에릭 다이어를 주전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투헬의 전술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는 결국 팀을 떠났다. 리그 12연패를 노리던 뮌헨은 2023~24시즌 레버쿠젠에 우승을 내주며 3위로 밀렸다.

올 시즌 뮌헨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뱅상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중용하는 스타일이다. 공격 상황에서 라인을 하프라인 가까이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빠르고 힘 있는 수비수를 선호한다. 콩파니 감독은 지난 시즌 내내 "실수가 잦다"며 현지 팬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김민재-우파메카노 조합을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다. 두 수비수의 부족한 부분은 팀 훈련에 직접 참여해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것으로 채웠다.

콩파니 감독은 현역 시절 벨기에 대표팀과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를 이끌었던 유럽 정상급 수비수 출신이다. 독일 스포르트는 "김민재는 레버쿠젠의 롱볼 공격을 '어뢰'처럼 튀어 나가 하프라인에서 가로챘다. 이게 바로 콩파니 감독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스포르트1은 "콩파니 감독은 투헬 전임 체제에서 부진했던 김민재와-우파메카노의 센터백 라인을 부활시켰다"고 소개했다.

콩파니 감독의 세심한 지도를 받은 김민재는 4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뮌헨의 핵심 수비수 자리를 굳혔다. 뒷문이 단단해진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개막 후 무패 행진(4승 1무)을 이어가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피주영 기자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ip into; (다른 곳에 쓸 돈을) 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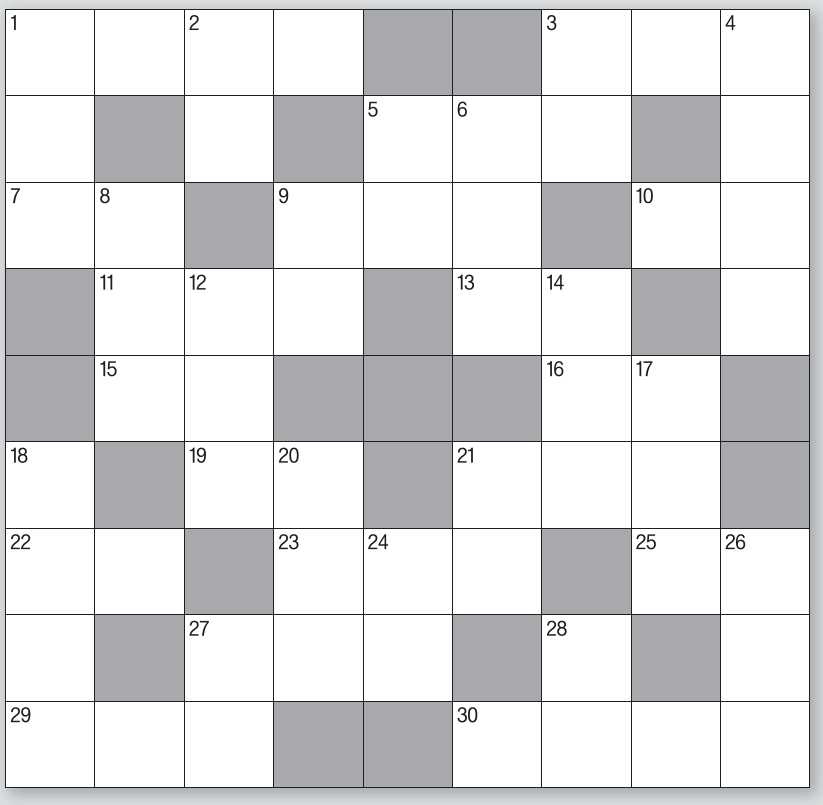
Simon and Mark are having coffee…
(사이먼과 마크가 커피를 마신다…)

Simon: Well last week I finally dipped into that money that I've been putting aside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사이먼: 있잖아 지난 1년 반 동안 모았던 돈을 결국 지난 주에 헐었어.
Mark: Wow, what did you do with it?
마크: 어이구. 어디에 썼는데?
Simon: First I had a great dinner at Spagos.
사이먼: 우선 스파고스에서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했지.
Mark: How much did that set you back?
마크: 출혈이 얼마나 됐는데?
Simon: Plenty but not as much as the suit I bought.
사이먼: 꽤 되지. 그래도 정장 사느라고 쓴 것 만큼은 아니야.
Mark: You must have gone through most of that money.
마크: 모아놓은 돈을 다 쓴 거네.
Simon: Not really. Most of it went to paying the rest of my student loan.
사이먼: 그렇지는 않아. 대부분은 대학 학자금 대출 남은 거 갚은 데 썼어.
Mark: Does that mean you're debt free now?
마크: 이젠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
Simon: Almost. I still owe a little on my credit card.
사이먼: 거의. 크레딧 카드 빚만 조금 남았으니까.
Mark: I wish I could say that. I'm not close to being debt free.
마크: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난 빚 다 갚으려면 멀었다.

기억할만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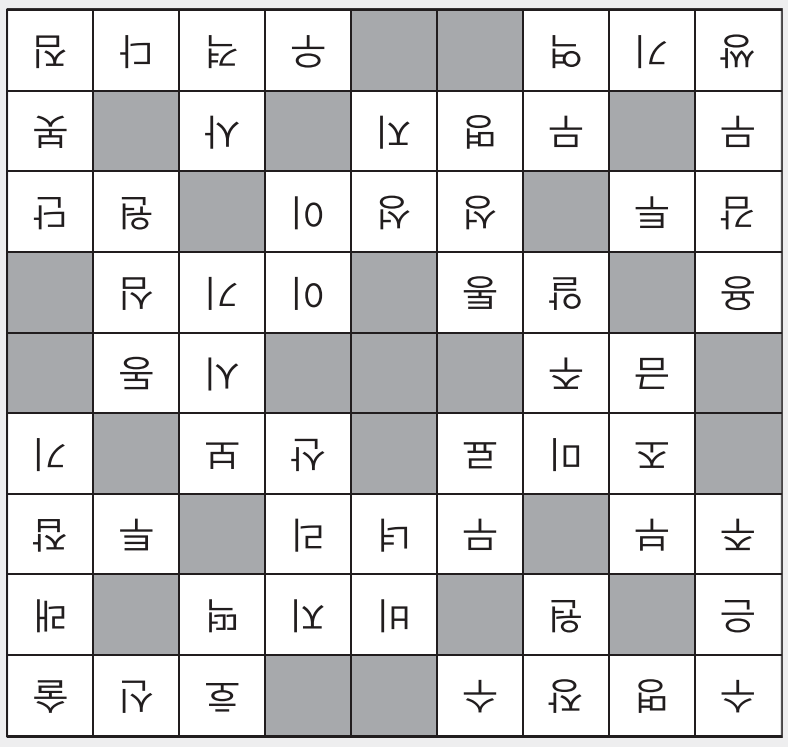
▶ put aside: 저축하다.
"She puts aside money from every paycheck."
(그녀는 임금을 받을 때마다 저축합니다.)
▶ set (one) back: (누구에게) 돈을 내게 하다.
"My car payment sets me back more money than I can afford."
(저는 능력에 비해 벅찬 액수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 go through (something): (무엇을) 다 써버리다.
"He goes through one tank of gas every week."
(그는 매주 휘발유를 한 탱크 씁니다.)

낱말퀴즈



가로열쇠 (1)목숨이 길어 오래 삶. 어린아이의 명이 길어 오래 살기를 빌 때 쓴다. □명□□ (3)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태권도, 유도 따위 (5)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끼를 둥글넓적하게 부친 떡. 보잘것없는 것. 싼 것이 ~이라고 싼맛에 산 스웨터의 바느질이 순 엉망이더라 (7)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 (9)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10)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일. 겹벌이. 월급이 적어서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을 해야만 한다 (11)음식의 맛을 돋우며 조절하는 물질 (13)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 (15)술을 끊음 (16)발동이 걸리기 시작함 (19)근육이 단단하게 불룩 나온 부분.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을 자랑했다 (21)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22)예전에 머리에 쓰던 관. 벼슬이나 직위 (23)오랑우탄 (25)모든 의류의 원료가 되는 천 (27)넷째 손가락 (29)한글 자모 ㄲ의 이름 (30)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킴. 형은 ~으로 내 가방을 빼앗아 갔다. 우□□□

세로열쇠 (1)온도계의 유리 대롱 부분. 밤에 ~가 뚝 떨어지다 (2)과거의 갑과에서 일등으로 급제함. 백일장 등에서 일등을 함 (3)가루를 반죽하여 설탕으로 소를 넣은 중국식 떡 (4)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들 놀이. □래□□ (5)여자의 쪽 찐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꽂죠 (6)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있는 산. 최고봉인 천왕봉의 높이는 1915미터 (8)잔칫집이나 상가 등 남의 큰일에 보내는 돈 (9)요금이 없음. 공짜 (12)항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 (14)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 (17)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18)용기가 있으며 씩씩하고 기운차기 짝이 없음. 용□□□ (20)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줌 (21)조선 시대의 학자, 정치가. 호는 율곡. 오천원권에서 만날 수 있지요 (24)종교적인 유적이 있는 곳. ~ 순례 (26)아주 간단하게 보자기에 싸서 꾸린 짐.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구고산 큰애기 ~만 싸누나 (27)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품을 매매함 (28)총을 쏘는 경기 종목



스도쿠

7		8		4		2	5	
			6		5			1
			7		1		3	8
				9			8	
6	7						1	3
5						9	2	
			9		6			7
	9				4	1		
		6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1	8	3	4	9	2	5	6
2	9	3	6	8	5	4	7	1
4	5	6	7	2	1	9	3	8
6	3	1	5	9	2	7	8	4
9	7	2	4	6	8	5	1	3
5	8	4	1	7	3	6	2	9
3	2	5	9	1	6	8	4	7
8	6	7	2	3	4	1	9	5
1	4	9	8	5	7	3	6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바보**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메가쑈킹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스페셜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싸~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싸~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팬텀2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팰리스2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퇴행성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견인!

PHANTOM Medical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선정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 혁신상 4년 연속 수상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퀵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푹신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Healthcare Robots FALCON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흙표흙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퀸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점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쉴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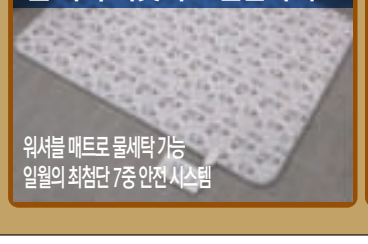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일월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 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 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Take Out Only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 주 48 ~ 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홀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험자
443-310-9247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 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륜델밀 샤핑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 방 렌트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꿔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책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 ,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지역 및 메트로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l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함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소지자)/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급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두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 스폰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좋음!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케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포드 깡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 /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다. 월–금, 오후 3 PM – 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웍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 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급매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로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개스비 포함되어 있슴). H-Mart 가까움.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센터빌 $800/유틸리티 포함
던킨도넛 근처, stone road 옆에 위치함.
703 762 6759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롯데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 마트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씽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씀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닌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랜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챈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웍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근처
웍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 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Ⅰ.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Ⅱ.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샬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쉘터 / · 시간 : 일 아침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 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덱, 케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성장지역,싼렌트,좋은매물
주인은퇴,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킴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us.srotech.com 차콜온돌 charcoal ondol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 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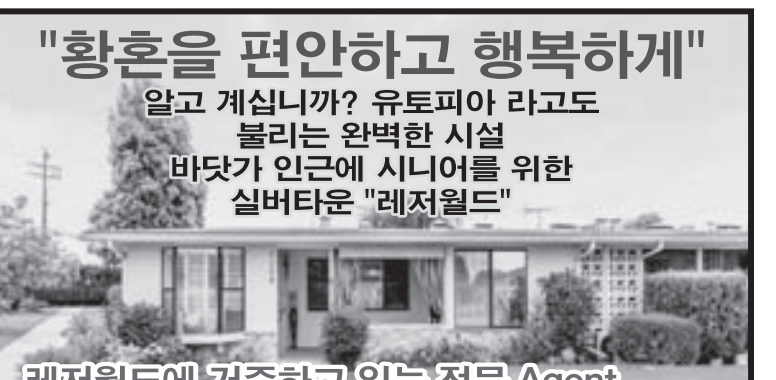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창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 거치다 살맥 천중산삼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젠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휘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에??!!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The JoongAng Los Angeles · Chicago · New York · Washington DC · Atlanta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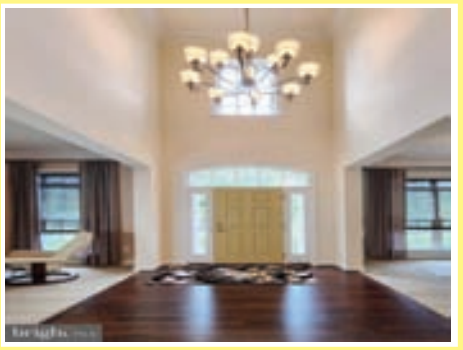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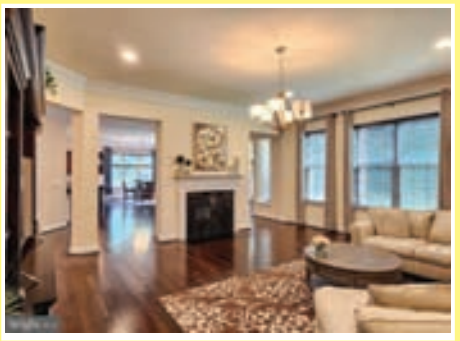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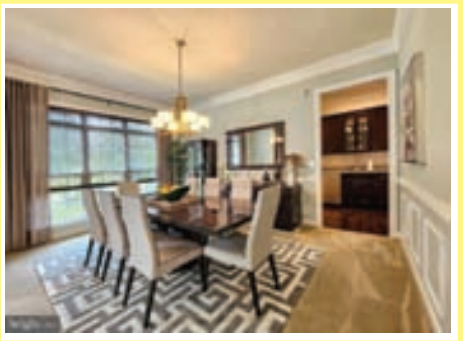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청해김 青海
안전 · 인증 · 최고 맛 ·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2,000개 / Box)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ONE STOP 서비스로 POS 용지와 냅킨과 커스텀 젓가락 디자인 취급합니다.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DOKDO FOOD & RESTAURANT SUPPLY
www.dokdosupply.com
213.985.4200
DOKDOSUPPLY.COM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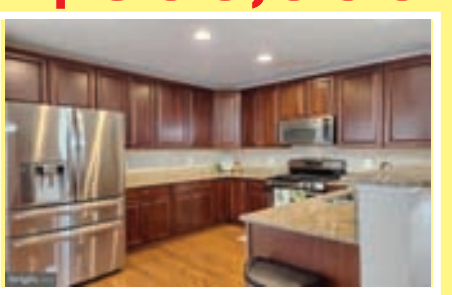
$1,79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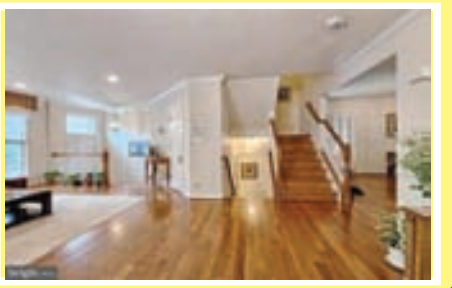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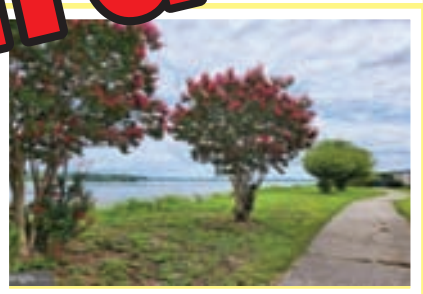
$1,335,000

SOLD

독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방3/화3

$6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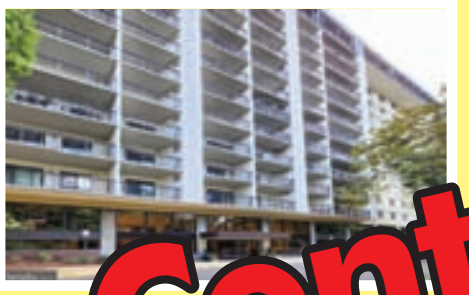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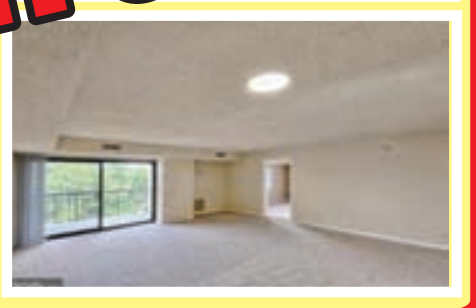
Contract

독점 FALLS CHURCH 콘도

아난데일 5분 거리, "GREAT VIEW"
방2/화2/세탁기/리모델링한 9층

$310,0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